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한국환경공단 2022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비재무적 활동과 성과를 담은 7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특별히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단의 ESG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ESG 성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 Standards(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방법(Core Option)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UNGC(UN Global Compact) 및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범위와 경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및 성과를 담고 있으며, 정량적 성과는 감소나 증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2019년~2021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정성적 성과의 경우 2022년 3분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공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 부문을 포함합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 검증표준인 AA1000AP(2018)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검증결과는 부록(Appendi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 정보

본 보고서는 국문으로 발간되며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의견 및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문의

누리집 : <https://www.keco.or.kr/>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 032-590-4000

이메일 : sustainability@keco.or.kr

TABLE OF CONTENTS

About K-eco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합니다

CEO 메시지	6
한국환경공단 소개	8
한국환경공단 연혁	10
한국환경공단 조직별 연락처	11
한국환경공단 주요 시설	12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14
ESG 경영 추진계획	15
주요 수상 내역	16
이해관계자 소통	18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0
중대성 평가	22

Social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58
상생의 환경산업생태계 조성	58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현안 해결	60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62
중대재해 제로달성을 위한 안전경영체계 확립	62
안전한 사이버보안체계 확립	64
지역사회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65
환경경영 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65
국가 환경정책을 선도할 청년 인재육성	6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67
실효성이 제고되는 사회공헌 활동 강화	68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70
수평적 문화 조성으로 인권경영 선도	70
양성평등과 다양성 존중	72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73
미래로 나아가는 화합의 노사관계	74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75

Environment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환경경영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한국환경공단	30
탄소중립 실현역량 강화	30
기후위기대응 정책지원 및 인프라 확대	32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K-eco 녹색활동	36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대응	36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39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실현	4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	46
디지털전환으로 만드는 미래 환경생태계	48
디지털전환 스마트 환경인프라 구축	48
데이터 기반 환경서비스 고도화	51

Governance

투명경영을 지향하는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	82
리스크 관리	82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체계 강화	84
내부통제 관리 강화	86
이해충돌방지 종합계획 수립	88
이사회 역할 강화 및 투명한 의사결정	89
공정한 기회제공	92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	92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	93
환경정보 등 정보공개 확대	93
대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94
APPENDIX	96

About K-eco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합니다



CEO 메시지

‘미래로 도약하는 두 날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약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환경서비스 기관을 지향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정부 환경정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단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듯이 인류의 미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중인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 역시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많은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기후대응기금의 배분과 운용, 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 지원 등 다양한 제도로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함께 변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인 기획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누구 하나가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국민의 삶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공단은 그런 변화의 마중물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역시 변화의 선도기관으로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40년 기관 넷제로를 목표로 삼은 것은 스스로 모범이 되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고 낭비되는 인력과 에너지가 없도록 하는 디지털전환 노력은 그런 혁신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칭찬이 아니라 격려일 것입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공단과 임직원 모두는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

변화의 파고를 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또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단은 다양한 사업과 정보들을 디지털전환을 통해 국민께 공개하고 그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발굴한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자는 제안입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에 함께 참여할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공단의 노력을 살피고 또 질책과 제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변화의 선도 기관으로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의 무대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환경복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욱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소개





공단 개요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기관통합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설립일	2010년 1월 1일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주무기관	환경부
설립근거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법률 제17853호)
기관장	안병욱 (임기 : 2021. 12. 31 ~ 2024. 12. 30)
본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운영 현황

 임직원수	3,316명
 자산규모	162,454 백만원
 매출액	1,335,535 백만원
 부채	240,933 백만원

*일반 정규직 및 공무원 포함(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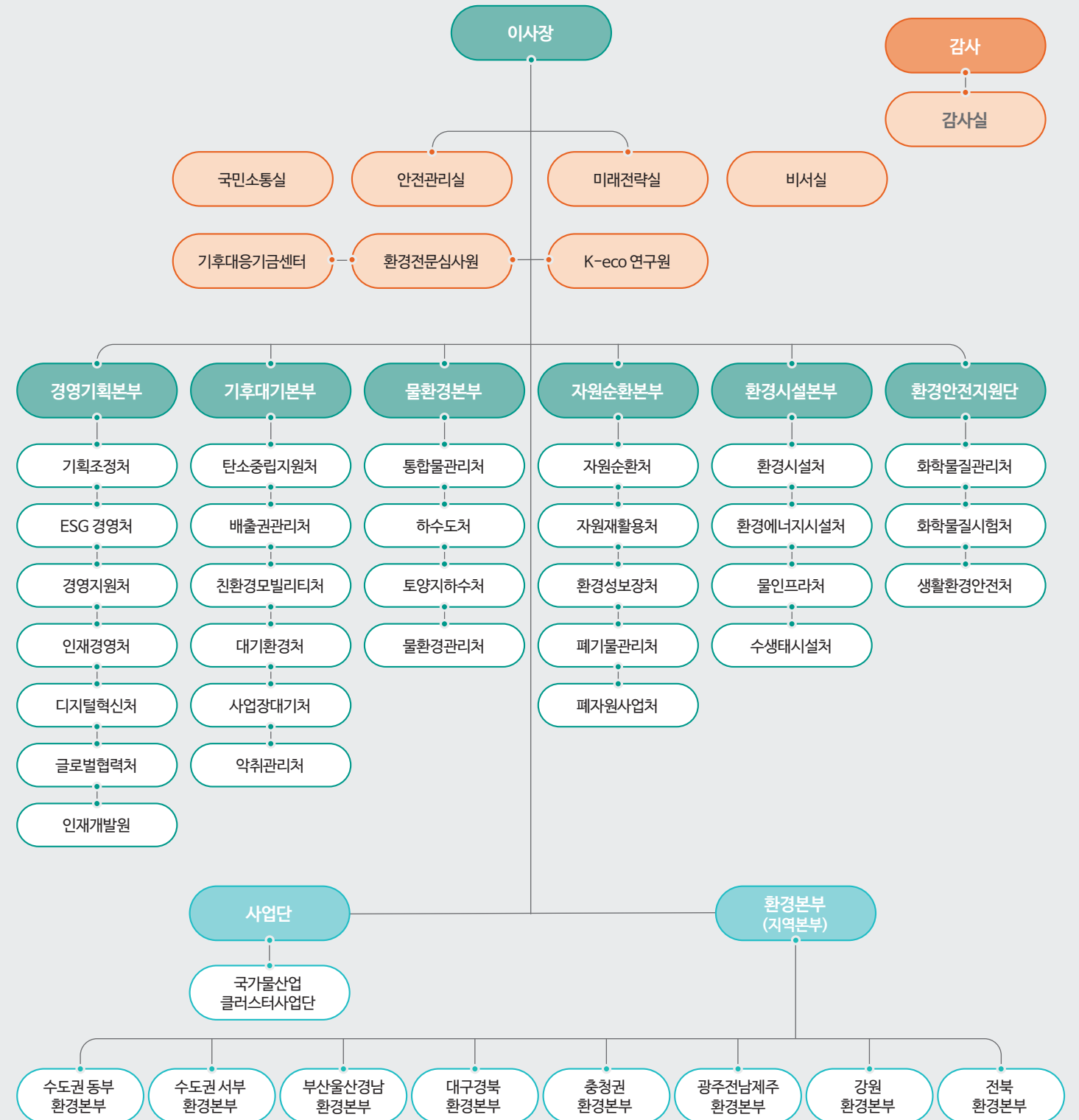
*2021년 말 기준

주요 기능 및 역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
-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구축·운영
- 수생태 복원 및 토양·지하수 환경 조사·평가·정화
-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 이용 및 친환경적 처리사업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 유해물질 검사·분석
- 환경오염 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수행

조직 구성(본사, 8개 환경본부 및 사업단)



한국환경공단 연혁

환경오염 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조직별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 안내

연번	조직명	주소	대표전화
1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4000
2	인재개발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043-640-6415
3	환경전문심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301호	044-410-0602
4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601-6042
5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 · 6층	031-701-9315
6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2 · 5 · 7 · 8층	02-3153-0500
7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600
8	대구경북환경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053-280-3883
9	충청권환경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042-939-2200
10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 6층	043-219-6401
11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062-949-0703
12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064-723-6542
13	강원환경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 · 8층	033-240-9562
14	전북환경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83
15	수도통합운영센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033-812-4086

한국환경공단 주요 시설



한국환경공단 본사 전경



인재개발원 전경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전경

대국민서비스 (공공데이터 환경포털)


서비스명	누리집	서비스명	누리집
공단 대표홈페이지(누리집)	www.keco.or.kr	영농폐기물관리시스템(농사후)	www.농사후.kr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www.lsns.or.kr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	www.vrs.or.kr
국가물산업클러스터	www.watercluster.or.k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안전진단	www.safechem.or.kr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www.waternow.go.kr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www.citywaste.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www.mecar.or.kr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www.hasudoinfo.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냉매정보관리시스템	www.rims.or.kr	자동차탄소포인트제	https://car.cpoint.or.kr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www.cleanroad.or.kr	자원순환정보시스템	www.recycling-info.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EcoAS)	www.ecoas.or.kr
물사랑누리집	www.ilovewater.or.kr	좋은빛 정보센터	www.goodlight.or.kr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서비스	www.nonpoint.or.kr	충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관리시스템	www.noiseinfo.or.kr/floorinfo/info.do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www.stacknsky.or.kr	탄소포인트제	www.cpoint.or.kr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www.chemnavi.or.kr	통합기후변화홍보포털	www.gihoo.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www.iepr.or.kr	폐기물부담금제도	www.budamgum.or.kr
생태하천복원사업정보시스템	www.nonpoint.or.kr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www.allbaro.or.kr
서울이니셔티브(SINGG)	www.singg.org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시스템	www.recycling-info.or.kr/opeweb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www.budamgum.or.kr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www.waterkorea.or.kr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www.srf-info.or.kr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	www.soosiro.or.kr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s://ncis.nier.go.kr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www.mulbaro.or.kr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환경사랑홍보교육관	www.keco.or.kr:7979/ecolove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인에어)	www.inair.or.kr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www.kedis.or.kr
에어코리아(Airkorea)	www.airkorea.or.kr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미션 ·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비전 **환경, 우리의 미래 - 미래를 여는 K-eco**

핵심가치	안전	전문성	소통	공정
경영방침	안전경영	원칙경영	열린경영	가치경영

전략목표	 탄소중립 지향 기후대기환경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물관리	 순환경제 중심 자원순환 확산	 녹색전환 · 안전환경 선도	 경영효율화 및 ESG 확립
경영목표	ETS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억제 (567백만톤 이하)	하수처리를 통한 오염부하저감 (99.9% 이상)	폐자원 재활용 순환이용률 달성 (82%)	녹색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촉진 (100만톤 이상)	부채비율 안정적 유지 (120% 이하)
전략과제	· 국가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선도 · 첨단 대기 모니터링 체계	· 글로벌 선도 수질관리 체계 · 똑똑한 물관리, 건설한 물산업	· 폐기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 자원 순순환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 생태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 유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기능혁신 및 경영효율화 · ESG기반 경영체계 강화

ESG 경영 추진계획

비전 **K-eco가 그린 ESG,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지향점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와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eco**

전략목표	E 환경 2040년 기관 넷제로, 환경위기대응	S 사회 지속가능 일자리, 중대재해 제로화	G 지배구조 청렴도 1등급 투명경영
전략과제	탄소중립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2040년까지 기관 넷제로 목표 달성 환경복지 기여 業연계 ESG 사업운영 기후위기대응 국가 · 지자체 · 기업 탄소중립 지원 ESG 실천문화 내재화 및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책임경영 더불어 행복한 일터가치 구현 중소기업 ESG지원 체계 강화 환경인재 양성, 청년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 상생	공정 ·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신속 · 정확한 공시, 환경정보 공개 확대 다양한 채널의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준법윤리경영 강화
로드맵	ESG 정립기('21년) ESG 경영 추진전략 수립 ESG 성과관리체계 구축	ESG 도약기('22~'23년) ESG 경영 내재화 'E'부문 통합지원 기틀 마련	ESG 경영 고도화('24년~) ESG 경영 선도 지속가능경영 주도
주요성과	디지털전환 환경서비스 · 올바로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응대율 전년대비 10%P 증가 순순환 자원관리체계 · 2021년 기재부 공공기관 시민참여 최우수 과제 선정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운영 · 2년 연속 할당업체 감축의무 100% 달성 공공수역 물안전 체계 구축 · 수질오염방제 인력 · 물자 공동 활용으로 신속한 사고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단기사업 일자리를 제외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8,040명으로 확대 채용목표제 운영 · 정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 형평적 채용 실적 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대 ·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 인권경영시스템 2년 연속 인증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 채용비위 제로 달성 · 국민권익위 중합청렴도 인사부문 2년 연속 '만점' ('21년~'22년) ESG 자율공시 정보제공 확대 · 23개 확대 (전년대비 383%로 증가) 대국민 소통 활성화 · '21년 혁신박람회 공공기관 TOP 1 등 대외 우수사례 선정 이사회 역할 강화 · 경영환경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소위원회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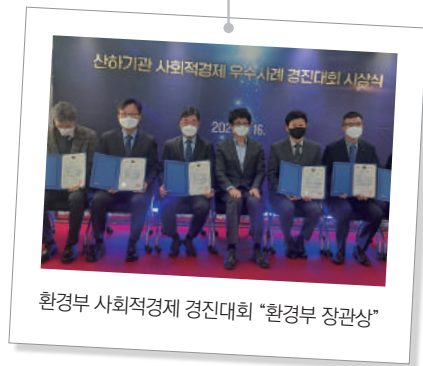
주요 수상 내역



스위스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2021년 에너지진단 우수기관



환경부 사회적경제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에미레이트 에너지 어워드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표창



한국공기업학회 혁신대상 '우수상'

2021년 공단 대외기관 수상 내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아름다운 도전상)"

폐자동차 내 폐전자제품 수거 · 재활용 모범실패사례

2021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특별상"

2021년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2021년 에너지진단 "우수기관"

2022년 공단 대외기관 수상 내역

2022년 기재부 혁신 우선과제 선정

영농폐비닐,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

에미레이트 에너지 어워드 "특별상"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 공급

한국정책학회 제11회 한국정책대상 "정책상"

시민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Free 아이스팩 재사용 전국 확산

국가 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여

2021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안전의식 · 안전문화 개선,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제12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국토부장관상"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2021년 기재부 공공기관 시민참여 최우수 과제 선정

시민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Free 캠페인 확산

2021년 대한민국 실패사례 공모대전 "사회공헌상"

적극행정이 만든 나비효과, 환경 부하가 적은 신(新) 환경 산업체 육성

한국공기업학회 혁신대상 "우수상"

소상공인 맞춤형 차량검사를 통한 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

청년정책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청년정책 유공 우수기관 선정

한국정책학회 제1회 한국 ESG 혁신대상 "우수상"(S부문)

공단 핵심사업 및 혁신성장 구현 등 주요 ESG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책임 실현

제12회 대한민국 "SNS대상"

수요자 중심의 뉴미디어 커뮤니티케이션 추진 및 양방향 소통 활성화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통 전략

이해관계자 그룹	가치창출형	가치협력형	가치공유형	가치나눔형
	공단 임직원, 노동조합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기업 등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모두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실천리더 어벤저스 노사협의회, 간담회 CEO 현장소통 직원 대나무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보도 및 기고 환경기자단 취재지원 정책간담회 민관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고객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혁신단 사회가치혁신추진단 SNS 및 대학생기자단 공모전, 사보, 홍보관
소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조 통합 추진을 위한 활발한 소통 -노사공동워크숍(2회), 노사협의회(4회) 실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새로고침 캠페인(10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탈플라스틱 대국민 홍보 언론기관을 통한 환경이슈 보도자료 적극 배포 환경매체별 다양한 환경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성과 공유제 추진 환경분야 청년창업기업 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착한 임대인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혁신단, 고객만족 추진경연단 운영 환경사랑공모전, 뉴미디어, 사보 소통 유튜브 정책설명회 10회 및 영상 소통 35건
실적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 노조 통합(2022년 1월) 공단 자체 청렴문화지수(KCI) 상승 - 2020년 82.7점 → 2021년 82.9점 조직문화 인식도 2020년 대비 0.6점 상승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발굴 및 5건 대외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티슈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지속 실시(1.1~12.3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16개 환경이슈 보도자료 2,512회 송출 대기, 물, 토양 등 66개 환경 정보시스템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활용건수 증가 (전년대비 29% ↑) 그린뉴딜 · 탄소중립 청년창업기업 10개소 발굴 · 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4.4억원) 면제 등 총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 과제 고도화(6개) 및 고객 제안(26건) 사회적약자 배려 사보로 한국농아인협회 '감사패' 수상 유튜브 구독자 1.5만명, 블로그 누적 방문자수 1,600만명(2022년 6월)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른 국민 제감 성과 창출(우측 표 참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국민참여 과제 추진

이해관계자 요구	국민 참여과제	추진성과
사회가치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저감 내 그릇 사용 캠페인 중소형 폐가전제품 대형마트 내 수거함 활용 시민주도 플라스틱 Free 확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그릇 사용 국민 참여 3,114건 폐가전 7만대 수거, 수거함 458개소 설치 온실가스 927톤 차단효과 일자리 4.5천명 창출효과 전국 협업체계 구축
경제활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재테크 참여 · 실천 어린이 · 시니어 참여 장난감 · 플라스틱 착한순환 및 사회적경제 지원 그린뉴딜 · 탄소중립분야 청년창업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 적금 · 외환 우대 국민 혜택 760억원 효과 시니어 일자리 157명 창출효과, 장난감 등 1만점 재활용 · 기부 청년창업기업 10개소 육성(지원금, 컨설팅)
업무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차량 드라이브스루 검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대국민 대기환경정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검사 대수 50배 증가 고객 만족 85% 달성 수질원격측정기 도입을 위한 처리기간 6개월 단축 비용 · 과태료 10억원 절감 대기환경 정보제공 챗봇서비스로 24시간 365일 민원 응대

이해관계자 소통 주요 성과

<p>국민체감 인지도 83.4% (전년대비 2.7%p 향상)</p>	<p>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93.7점 획득)</p>	<p>정보공개 고객만족도 향상 ('20년 7.68점 → '21년 9.97점)</p>
<p>원문공개율 향상 ('20년 45.7% → '21년 53.2%)</p>	<p>'21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p>	<p>'21년 법무처 공정경제 성과대회 모범거래모델 우수사례 선정</p>

지속가능발전목표(K-eco SDGs)

한국환경공단 지속가능발전목표

공단은 '자연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K-eco'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과 16개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56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UN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환경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전	자연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K-eco			
전략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환경	투명하고 존중하는 조직환경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환경 재해 예방 및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증진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권 보장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공단 내부의 환경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소통으로 국민 신뢰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사회 기여를 통한 지역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문화 구현 화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SDGs	<p>깨끗한 물과 위생, 산업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건강과 복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불평등 해소</p>	<p>양질의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글로벌 파트너십</p>	<p>양질의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글로벌 파트너십</p>	<p>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p>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복지 안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일자리 상생협력 공동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노동 책임 · 윤리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1.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

- 1-1 대기오염 및 배출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 · 운영한다.
- 1-2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 · 운영한다.
- 1-3 운송분야의 연료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 1-4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2.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 2-1 하천 수질환경을 정확하게 측정 · 관리하고 수질오염상황을 실시간 제공하여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한다.
- 2-2 누수 없는 수도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확대한다.
- 2-3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하고, 물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국가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3. 환경 재해 예방 및 복원

- 3-1 산업화 · 개발 등으로 오염된 토양 · 지하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3-2 수생태계의 오염을 예방하고 보전 및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3-3 홍수 등 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4.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4-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 4-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활동을 강화한다.
- 4-3 기후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환경

9. 대국민 소통으로 신뢰 획득

- 9-1 국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행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 9-2 환경 및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 9-3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 9-4 모든 국민이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9-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공개한다.

10.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

- 10-1 환경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10-2 청년 고용을 증대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
- 10-3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1.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 11-1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기업의 역량을 증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11-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 11-3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은 높인다.
- 11-4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2. 사회 기여를 통한 지역 발전

- 12-1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다.
- 12-2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 12-3 개도국의 SDGs 이행에 필요한 환경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5. 민감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증진

- 5-1 생활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5-2 생활 속 1군 발암물질(라돈, 석면, 다이옥신) 노출 최소화로 민감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
- 5-3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6.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권 보장

- 6-1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며, 통합적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개발, 이행한다.
- 6-2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 6-3 영세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7.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 7-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한다.
- 7-2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7-3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8. 공단 내부의 환경영향 최소화

- 8-1 공단 내부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8-2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8-3 녹색 구매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투명하고 존중하는 조직환경

13.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 13-1 공정하고 사회형평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 13-2 나이, 성별, 장애여부 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
- 13-3 여성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 13-4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13-5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14.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

- 14-1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14-2 투명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 수준을 향상한다.
- 14-3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교육과 외부 소통을 강화한다.

15.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문화 구축

- 15-1 인권 존중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모든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15-2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습자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5-3 여성 등 성적 약자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성적 폭력을 철폐한다.
- 15-4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16. 화합하는 노사관계 형성

- 16-1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16-2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처우와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 16-3 임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 지원한다.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개요

한국환경공단은 GRI Standards의 보고 원칙에 따라 공단의 ESG 경영 중대이슈 도출을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위한 전체 이슈 풀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석, 동종분야 벤치마킹 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였으며, 공단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ESG 경영 이슈 파악

-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석**
GRI Standards, UN SDGs, ISO 26000등 ESG 경영 주요 이니셔티브 지표 분석
- 동종산업 벤치마킹 분석**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환경산업분야 ESG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 이슈 분석
- 내·외부 환경분석**
공단 내부 경영 현황 분석, 국내 법·제도 분석으로 기관이 가진 ESG 경영 주요 이슈 파악

전체 24개 이슈 도출

STEP 2. 중대성 평가

-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내부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이슈에 대한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수행
- 사회적 관심도 분석**
외부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분석 수행
- 중대이슈 도출**
비즈니스 영향도(X), 사회적 관심도(Y) 매트릭스 구성으로 공단의 ESG 중대이슈 도출
- 전체이슈 (24개) 중 주요이슈 14개 도출
- 설문참여 인원 수 : 내부(107명), 외부(108명)
- 설문기간 : 22.09.07 ~ 09.14

HIGH : 14개 이슈, Medium : 7개 이슈 도출

STEP 3. 유효성 검증

- 유효성 검증**
14개의 High 수준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와 공단 ESG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 유효성 검증을 위해 환경분석,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수행
- 웹크롤링 분석**
전체 이슈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웹크롤링 분석을 통해 각 이슈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유효성 검증 수행

14개 중대이슈 유효성 검증 수행

중대성 평가 이슈

목차	이슈	GRI Topic	UN SDGs	보고 경계	보고 페이지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한국환경공단	1, 4	에너지, 대기배출	11, 13, 16	외부	30~35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K-eco 녹색행동	2, 5, 6, 8	에너지, 대기배출	3, 6, 7, 13, 14	외부	36~47
디지털전환으로 만드는 미래 환경생태계	3, 7	간접경제효과	7, 8, 9, 16	내·외부	48~51
중소기업 ESG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10, 12, 14	간접경제효과, 지역사회	7, 8, 9, 12, 17	내·외부	58~61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11	산업안전보건, 고객정보보호	4, 10, 16	내·외부	62~64

UN SDGs 1. 빈곤의 종식 2. 기아의 종식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행동 14. 해양생태계 보호 15. 육상생태계 보호 16. 평화, 정의 및 제도구축 17.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순위	중대이슈
1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실현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대응
3	탄소중립 실현역량 강화
4	건강한 조직문화
5	기후위기대응 정책지원 확대
6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
7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
8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9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체계 강화
10	갑질 근절 등 인권경영 실현
11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12	디지털 전환 스마트 환경인프라 구현
13	임직원 전문성 강화 및 환경전문 인재 육성
14	이사회 역할 강화 및 투명한 의사결정
15	환경정보 등 정보공개 확대
16	데이터 기반 환경서비스 고도화
17	대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18	ESG 리스크 관리
19	지역사회 환경경영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
20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21	환경규제 해소 적극행정
22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
23	민간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24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강화

●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목차	이슈	GRI Topic	UN SDGs	보고 경계	보고 페이지
지역사회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9, 13	지역사회	1, 2, 8, 11, 10, 17	외부	65~69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15, 16, 17, 18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인권평가	3, 4, 5, 10, 16	내·외부	70~75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	19, 20, 23	윤리성 및 청렴성, 거버넌스, 반부패	10, 16	내부	82~91
공정한 기회제공	22	반부패	5, 10	내부	92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	21, 24	이해관계자 참여	11, 13, 17	내·외부	93~95

Environment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환경경영



K-eco가 선도하는 탄소중립, 더 나은 미래로

오늘날 기후위기대응은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삶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을 통한 스마트 환경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환경 서비스를 고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ESG 경영 중대이슈

중대이슈

-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한국환경공단
-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K-eco 녹색활동
- 디지털전환으로 만드는 미래 환경생태계

SDGs 목표



UNGC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중점성과

디지털전환 환경서비스

올바로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응대율 전년 대비
10%P 증가

순순환 자원관리체계 구축

2021년 기획재정부
시민참여분야
최우수과제 선정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2년 연속
할당업체 감축 의무
100% 달성

공공수역 물안전 체계구축

방제 인력 · 물자 공동 활용으로
신속한 사고대응 강화

INTERVIEW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한국환경공단의 ESG·지속가능경영

제가 우리 공단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 일은 바로 ESG 위원회와 탄소중립 위원회, 그리고 디지털전환 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ESG가 우리 공단의 심장이고 양 날개가 바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각각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흔히 온실가스 감축만 생각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공단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본업이 있고 자원순환 분야와 물 관리·물 순환 분야,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분야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과 연계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단의 정체성이자 존재 의미일 것입니다. 공단의 모든 사업은 탄소중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업무방식도 모두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디지털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공단은 ESG라는 심장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욱 이사장/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단의 다양한 노력

우리 사회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된 제도 대부분을 우리 공단이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우리 공단이 세부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실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산업계), 지역 및 사회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 기후대응기금 역시 공단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필요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배출권거래제'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도 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시행중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도 운영 중인데,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탄소배출저감 활동을 실천하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에 좀 더 쉽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를 공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들을 더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우리 공단의 과제라고 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공단과 유관업체들의 협력과 동반성장

(주)소프트아이텍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21년 공단에서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평가기준에 ESG 관련 점수를 반영했기에 우리 회사도 ESG 관련항목을 준수하고 관심 있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야말로 공단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공단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 생태계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부면에서 공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낡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하여 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국내 환경관련 업체들의 성과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단과 비즈니스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환경 영향성 또한 비례해서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 하는 것도 공단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 임직원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실질적인 ESG·지속가능경영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포상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선재 이사/(주)소프트아이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의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은 탄소중립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계획(21.3)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이 3대 정책방향입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보완개정안이 공개되었으며, 업종별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이행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적 환경 솔루션 개발을 통한 도약

국가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공단은 환경 전분야에서 다양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및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수행해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환경 전분야에서 대기, 물·토양, 폐기물 등 다매체 관리라는 공단의 특성이 강점이며, 여러 매체를 융합·통합 활용하는 기능은 더욱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매체를 초월한 통합적 환경 솔루션을 찾아 가는 노력이 아울러, 환경백화점이라는 별칭을 벗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 ESG·지속가능경영 도입 초기이긴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전방위적인 친환경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최근의 경영평가 1등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탄소중립실현은 물론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공단의 사업들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부
(전 기후전략과장, 폐자원에너지과장, 기후경제과장)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노력

(주)도시유전은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저온에서 파장·분해하여 고품질의 재생유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ESG는 역시 화두입니다. 폐비닐·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소각, 매립할 경우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저온열분해하여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되는 재생유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도시유전은 자체 개발한 세라믹불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파장분해처리하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단의 지원

저는 공단의 ESG 이슈 중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실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환경부가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순환경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지향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실천과 공약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환경관련 규제개선을 발표한 만큼, 공단이 이를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단은 ESG 경영을 강조하며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분야별 탄소저감 중점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많은 노력과, 특히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압니다. 중소기업의 ESG·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함동현 본부장/(주)도시유전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관리전문기관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민간 기업들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대응과 ESG 경영으로의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2022년 본격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기후대응기금 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대표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역량 강화

핵심가치 실천방향 구체화

전세계 14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경제질서마저 탄소국경조정제, 탄소세, RE100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되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21.5),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24. 공포)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자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21.11).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방향과 공단의 사업을 연계한 10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전략방향과 공단 사업을 연계한 10대 중점과제 설정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선도	② 기후환경 위기대응력 강화	③ 기관 넷제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탄소중립 재정·예산제도의 정착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고도화 ③ 공공·산업·민간부문 저탄소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탄소중립 미래신사업 발굴 ② 기후·대기 통합형 대기관리 ③ 기후위기에 안전한 물환경 조성 ④ 자원순환 선도, K-순환경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넷제로 시나리오·로드맵 마련 ② 그린리모델링 및 연료전환 ③ K-eco RE100 추진

2040년까지 기관 넷제로 목표 달성 노력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ESG 경영추진전략을 수립하고 ESG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전문 공공기관다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중 E(환경)를 위해 '2040 기관 넷제로' 목표 달성을 통한 환경위기대응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세 가지 방향의 기관 넷제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2040년까지 기관 넷제로 목표 달성		
① 그린 리모델링 공단사용건물(61동) 순차적 태양광 설비 설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그린 리모델링 병행	②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신규차량 도입시 전기차·수소차 100% 도입 '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100% 전환	③ 신재생에너지 전환 측정소 지역 특성 반영한 친환경 풍력발전기 설치, 저전력형 장치·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관 넷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단은 사용건물 61동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 등 그린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으로 탄소 2,002톤CO₂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유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수질·대기측정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저전력형 장치,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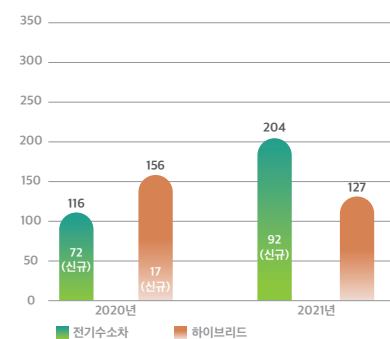
임직원 ESG 실천문화 내재화 및 확산

공단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구내식당 음식을 잔반제로 등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탄소저감 활동을 선정하여 <K-eco 그린 ESG 실천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캠페인 활동별 탄소저감량을 제시하고 행가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임직원의 ESG 활동을 기록하여, 캠페인 참여에 따른 탄소저감량 및 사회적 성과로 수치 시각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ESG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직원의 ESG 실천동기를 부여하고, 전사적으로 ESG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eco 그린 ESG 실천 캠페인> 포스터

저공해차량 구매·임차 현황



그린 모빌리티 전환

기관 넷제로 실현을 위해 공단은 신규 차량은 1.2종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기로 2020년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80%는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를, 20%는 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를 구매·임차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상 공공부문 의무도입률을 준수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은 2종 저공해차 감소분을 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로 100% 구매임차하여 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집계차, 화물용 트럭, 특수차량 및 장비탑재차량 제외

기후위기대응 정책지원 및 인프라 확대

한국환경공단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당기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정책의 운영기관으로서 국가, 지자체, 기업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원과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감축, 그리고 국민 참여 온실가스감축 확산 등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전문기관 지정·운영

2022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국가 재정'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제도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제도운영체계 구축 및 예산·기금이 국가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술업무와 감축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감축인지예산서·결산서를 통한 예산사업의 지속적 성과관리를 통해 2050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대표적 재정프로그램 기후대응기금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 신설하였고 운영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은 2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및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공단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40퍼센트 감축(18년 대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2020년 정부 감축목표를 달성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7년 대비 2030년 국가 목표(24.4%)를 상회하는 목표(37.5%)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 공공부문의 비규제부문 대상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는 외부감축사업모델을 발굴, 2022년 목표관리제 신규기관에 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 등), 그린카 보급 등 선제적인 지원을 이행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를 확산해나가고자 합니다.

책임과 보상을 강화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업분야의 강력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필요에 따라 공단은 체계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으로 전 할당 대상업체 감축 의무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 배출목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차 계획기간 대비 배출목표를 8.4% 강화하였고, 감축실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의 감축참여 확산을 유도한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전 업체 감축목표 100%(2021년 635개 업체 배출권 제출 완료)를 달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컨설팅

공단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재정이 확보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민간부문의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한 국가의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은 2026년까지 지원대상 기관 25개소를 목표로, 2021년 광역정수장 및 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 6개 유형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5개소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맞춤형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및 정보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6개 유형 탄소중립모델 발굴

친환경냉매기기 교체로 인한 온실가스감축 기대효과 1,690톤CO₂eq

노후 냉매사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2019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2.25%를 차지하는 불소계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은 냉매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유발 효과가 높은 냉매를 사용하는 노후설비를 친환경냉매 사용기기로 교체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업체별 설비 교체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심의하여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체냉매사용기기 교체로 매년 1,690톤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물질 및 불소계온실가스의 단계적 생산·소비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 확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전반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유도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문화 확산을 정착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선행사례를 보여줄수록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다양한 국민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인센티브제(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인센티브제

'탄소포인트제'는 210만 가구가 참여 증으로 가정 내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탄소저감에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작년 7천대에서 올해 5만대로 대폭 확대되어 개인승용차 운행 감소를 통하여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등의 홍보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 가정에서 전기·가스·수도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

- 기준** PC에서 누리집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 개선** 모바일을 통한 회원가입 후 서비스이용가능
- 플러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가입 유도(농협 가입자 대출 예금 금리우대), 홍보채널 다각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차량의 감소 주행거리 확인 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

- 기준** 누리집을 통한 주행거리 확인용 계기판 증빙자료 제출 시
- 개선** 문자 URL을 통한 즉시 촬영으로 가능
- 플러스** 참여확대와 홍보를 위해 6개 자동차손해보험사와 협업 추진(21.5~)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 전자영수증 받기, 다회용기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

- 방법**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음

다양한 협업과 편의성을 높여 '21년 **109,000가구 신규 가입** (전년 대비 49% 증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예산증액을 통해 7천대('21년)에서 **5만대('22년)로 대폭 확대**

'21년 온실가스감축목표량 **775,949톤CO₂ 달성** (전년대비 8.7% 증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총 6,314기)으로 온실가스 **39,628톤CO₂ 감축**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인프라 조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의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및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서비스 혁신

그동안 에너지전환 인프라 미비로 인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소통채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5명으로 구성된 <K-eco EV 서포터즈>를 시범운영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SNS에 불편 혹은 개선사항 관련한 이용후기를 3개월간 작성토록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① 신속한 고장처리 체계마련

문제 : 충전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 충전기 고장 시 긴급 대응 조치. 평균 처리기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② 적재적소 충전인프라 구축

문제 : 충전기 부족
→ 설치가 쉬운 지점보다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전기차 충전기 1,060기 배치



③ 고장 및 조치사항 공개

문제 : 충전기 고장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제조사별 책임성, 품질관리 강화, 고장률 3%에서 1%수준으로 대폭 개선



국회 수소충전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가속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만큼 시급한 부분은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전담지원 체계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21.7)하여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정규직제 편성(14명) 및 사업예산(250백만원)을 확보하여 수소충전소 대상부지 적합성 및 설치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위치·가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신규 발굴 부지 200곳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수소충전소 170기(누적)를 구축하고, 적정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정부목표(2022년 310기) 달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K-eco 녹색활동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대응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환경관리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eco 통합물관리 비전 체계>를 수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아래 그림과 같은 4가지 목표와 4대 추진전략 및 14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물환경 관리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유역 물순환 체계구축을 통한 저에너지 탄소중립형 하수도서비스 제공과 수질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유역물환경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침수 예방기능 강화 및 에너지자립을 통한 물인프라의 기후변화대응력 향상, 그리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물순환 관리 디지털대 전환 지원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 구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침수예방 역량 강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능력을 초과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공단은 도시침수 원천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침수 피해지역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침수 우려지역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2년 실시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19개 지자체의 34개 지역에서의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등 침수피해 발생우려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내 다수의 지하매설물로 저류시설 신설이 불가능한 탓에 침수사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강남구·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지류감시율
'20년 38.6% →
'21년 53.3% 달성
(전년대비 73% 증가)

수생태계 보호 및 수질오염 관리

촉진한 수질측정망으로 수질오염 감시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4대강 유역 하천을 중심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며 실시간 연속적인 수질변화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오염 감시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전체 총 495건 중 지류발생이 461건으로, 산업단지 등 지류 중심의 오염원 근접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 국가자동측정망(본류 43개소, 지류 27개소)과 연계한 하천 본류·지류 통합감시망 구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낙동강수계 지류오염원 감시를 위해 센서형 소규모 수질감시망 20개소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 및 소규모 수질감시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 유역관리부를 신설하여 수질오염 감시경보체계를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4대강 방제비축센터 완성으로 수질오염사고 사각지대 해소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이며, 실패할 경우 지류·지천 및 유역 하천 등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취수원 오염은 물론 취·정수장의 물공급 중단 및 물고기 폐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에서는 선박 및 방제장비·물품 등 재난물자의 상시 비축을 통해 신속한 방제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유역거점 5개소를 포함해 2022년엔 남한강 방제비축센터, 2023년엔 전북권(만경강·동진강) 비축센터 건립을 완성으로 7개소의 대유역 거점 비축센터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며, 유역거점 비축센터 외에도 소하천 중심(9개소)의 소규모 비축시설도 함께 운영합니다.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충분한 재난물자 조달 등 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낙동강하류 폐준설선(2대) 집중호우로 인한 유류 유출사고 방제조치(2021.8.7 ~ 8.15, 8일간)		
사고 발생	공단 방제지원 → 초동조치 성공	2차 피해방지
낙동강 직접 다양 유출로 하류 물공급 시설 중단, 해양 오염 우려(24km → 남해)	(인력) 대구경북본부 63명(누적인원) (장비) 보트, 드론, 유회수기, 방제차량 (기술) 차단선 구축 → 유회수 → 잔유제거	차단선(오일펜스) 내 유류 전량회수, 하류 취정수장 및 해양오염확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동 성공요인) 낙동강 하류 비축센터(→ 낙동강 직선 1km)에서 신속충분한 방제물자 조기투입 		

수질오염방제 작업



주거 및 산업 공간 대상 저영향개발* 확대로 물오염·기후위기·탄소중립 동시 관리

수질오염은 지도상 점으로 표현되어 발생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공장이나 가정하수 등과 같은 점오염원 그리고 발생지점이 불명확한 도로, 농경지, 대지 등의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전체 수질오염의 72%가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한 반면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물오염 관리 분야의 체질개선 및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와 동시에 물순환 및 탄소흡수원 확대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특히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조성된 노후산업단지의 오염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진노력	실적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규모에 대한 기준 마련 연구 추진 기관 협업을 통해 저영향개발적용 의무 부여('21.7) 저영향개발 적용 시 여러 인허가요건을 동시 충족하도록 제도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기신도시 빗물관리목표 확정 (환경부, 국토부, 공단, LH) 저영향개발 면적을 생태면적률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산업단지에 오염저감, 물순환,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추진 ('22년 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시설 2개소 처리량(T-P기준, 연간 17톤) 및 자동차 748대분 배출량 저감, 소나무 8,284그루 식재효과 (1,157톤CO₂)

* 저영향개발 :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인프라(가로수, 화단, 인도 등)에 물순환기능과 식생, 토양의 자연정화기능을 부여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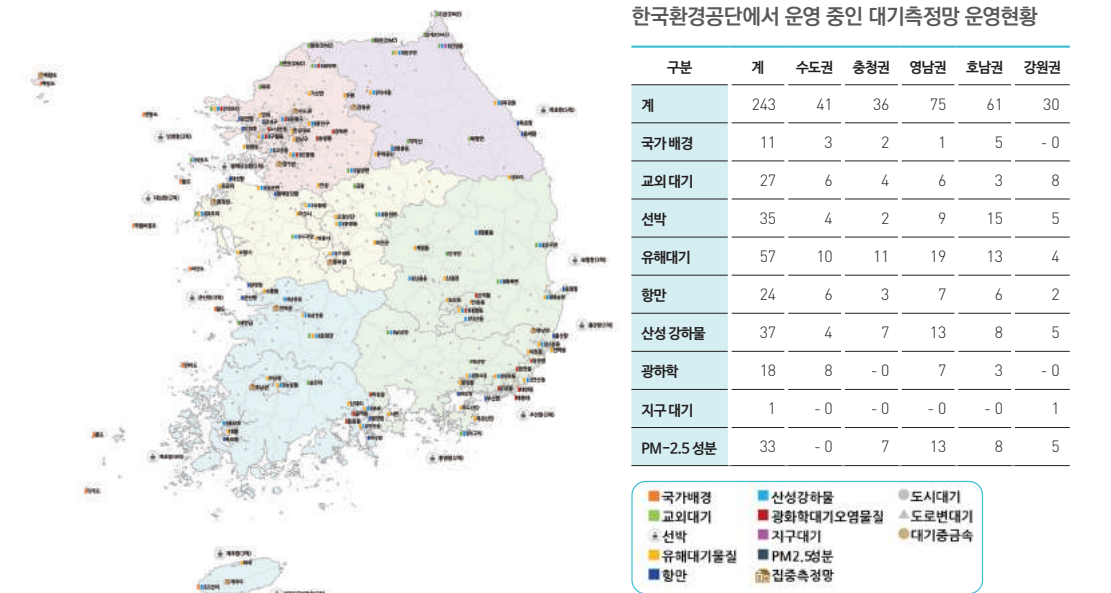
토양지하수 오염원 관리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공단은 오염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운 토양지하수의 환경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사 및 정화를 수행중입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 및 주민 밀접지역에 대한 중점관리가 절실했습니다. 즉 방치된 토양지하수오염원 관리, 주민 밀접지역의 오염 지하수 및 대규모 오염토양 정화를 통한 주민건강 위해요소 저감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지하수 오염원 76,979개소 신규조사(누적 1,476,230개소), 방치 휴·폐업주유소 토양오염조사 및 조기 정화를 유도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오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밀접지역 오염지하수 10,388톤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저감하였습니다.

문제인식	전수 사전조사	방치주유소오염조사	조치내용
방치된 휴·폐업주유소 인한 토양오염 우려	전국 휴·폐업주유소 사전조사(3,295개소) → 방치주유소(216개소)	토양오염조사 (216개 중 72개소) *잔여분 조사(~'23년)	오염발견(7개소) 및 지자체 통보 → 정화조치 점검('24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한국환경공단은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지역별 대기오염 배출원을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실시간 대기환경 모니터링)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대기측정망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을 추진하였고, 측정기 성능 향상을 위해 42개 관련업체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였으며, 운영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도가 낮더라도 인체 유해성을 가진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다수 측정망이 내륙에 밀집한 탓에 항만 관리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측정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lobal Top Level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선진국 보다 2배 이상의 측정망 운영	세계최고 수준의 측정망 가동률 유지	실시간 유해대기 오염물질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망 밀도 0.9개소/100km² (미국 0.22개소, 영국 0.3개소/100km²) 고밀도 측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측정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망 가동률 97% 이상 유지 (미국 91%, 영국 94%) 높은 가동률 유지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신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대기측정망 자동화율 99% (영국 13%, 미국 0%) 유해물질 실시간 측정으로 정책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망 895개 - 유해대기측정망 6%(58개소) - 항만측정망 2%(1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추가 구축 실적 - 유해대기측정망 5개소 - 항만측정망 3개소 	

신뢰도 높은 대기정보의 지속적 제공으로 대기질 개선에 활용

대기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 밀접지역의 대기질 집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생활 주변 대기오염 배출원을 집중 저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분석자료 제공과 대기정보 웹진 분기별 대국민 배포 등 자료분석을 강화하고 대기 모델링을 활용한 오염물질 해의 유입경로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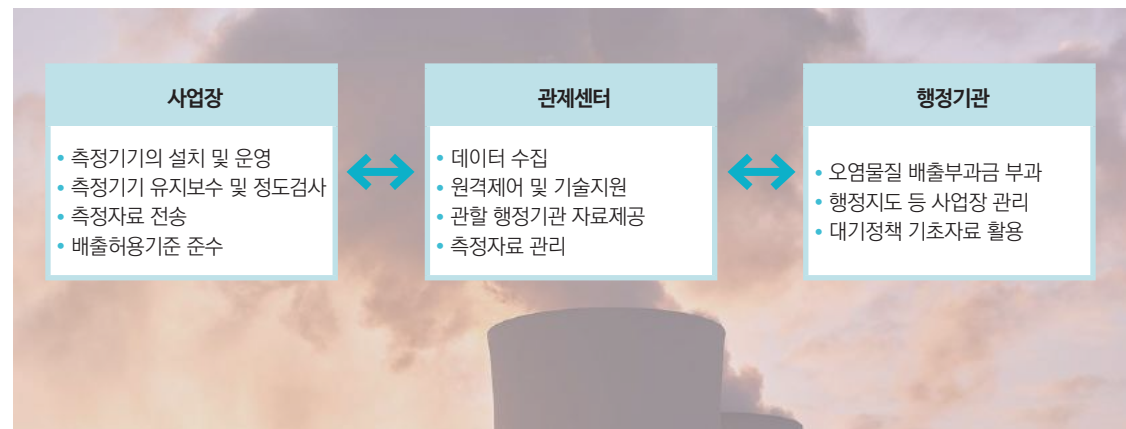
지자체	공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기질 예보·주의보 발령,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기준 초과 시 발령 검토 시행(17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역사 환기 가동 기준) 미세먼지 농도별(PM-2.5/m² 초과 시 급·배기 중지 등) 지하철 역사 내 환기설비 가동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가동중지, 발전소 발전출력 제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고농도 초과배출 여부를 24시간 집중 관리하여 초과우려시 자동 감시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1개의 석탄 발전소 오염물질 저감조치 계획 준수 확인 및 배출 수준을 집중 관리한 결과 사업장의 신속한 대응 및 적절한 운영 유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였으며, 석탄발전소 관리 강화로 목표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많은 순으로 1~3종 배출사업장을 구분해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여 배출량을 저감하였습니다.

사업장 굴뚝 측정기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대기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과학적 환경행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을 통한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응하여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 111개소의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TMS 부착 전체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굴뚝자동측정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7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실현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발생한 폐기물은 적극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순환경제 실현과 친환경 폐기물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전기전자·자동차) 등 고도화된 자원순환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정보 부족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원순환제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재활용대상 품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단순 처분되는 폐기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업체 정보 및 매칭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적발·지적 중심의 현장조사 방식에서 탈피,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컨설팅)을 병행하여 숨은 폐기물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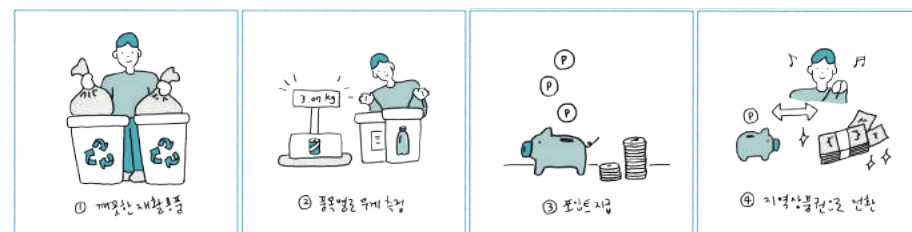
1. 생산관리 → 2. 발생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대포장 검사 폐기물부담금부과·징수 	2. 발생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운영
1. 생산관리 → 5. 소각 매립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플라스틱자발적협약도·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재활용목표·실적관리, 부과금부과), 환경성보장제도 및 EcoAS 시스템 운영 	2. 발생억제 → 5. 소각 매립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 목표 설정·실적관리, Allbaro운영 (폐기물 발생→운반처리 전자인계관리), 환경통계작성·제공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 운영
3. 재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지원·기술지도 컨설팅 비용지원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 재활용실적 관리 순환자원인정 기술검토 	3. 재활용 촉진 → 4. 물질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시장관리센터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3. 재활용 촉진 → 5. 소각 매립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징수 	4. 물질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리 폐비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검·경찰입수폐기물자원화
5. 소각 매립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빈용기 보증금 재활용실적 관리 	6. 에너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형연료제품(SRF) 품질·시설검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소에너지 생산

공공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전환

‘2018년 재활용품 수거대란’이나 ‘2020년 폐지수거 거부’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폐기물 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단은 2021년 4월 공공 중심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서울시 2개 자치구 내 공동주택 선정 및 시범사업이 추진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책임이나 재활용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은 민간영역으로 간주하여 관리부실을 초래했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급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공단-수탁기관 중심의 업무협업체를 구성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책임수거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리배출의 새바람을 일으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추진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분리수거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중 약 30~40%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다량의 악취 협착물 선별에 인건비 등 작업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간 중심 수거재활용체계는 저품질의 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로 이어지는 반면, 고품질의 재활용물은 해외에서 다량 수입되는 (19년 기준 폐지 146만톤) 등 현행 분리배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22년 2월). 이를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확립과 생활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투명생수병의 진화!

2020년 공단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페트병 등의 분리수거 시 라벨을 떼어 버리는 것을 홍보하였으나 널리 확산되지 못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신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페플라스틱 20%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공단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페트병의 지속적인 무라벨화 확대를 비롯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량을 증대(20년 19천톤 → '21년 21천톤)시키고 나아가 투명페트병 재질을 재생플라스틱(재생페트 또는 바이오페트)으로 전환하는 탈플라스틱 사업, 즉 ‘플라스틱 Fre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품질 자원재활용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무라벨 페트병 생산 시 연간 약 60톤의 라벨용 비닐량 감소, 88톤(CO2eq)의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및 재사용 목표 114% 초과달성

‘21년 기획재정부 시민참여 분야 최우수 과제, 행정안전부 협업이음터 참여조회수 1위

환경부 정부혁신 우수과제, ‘21년 혁신박람회 공공기관 TOP1 등 대외 우수사례 선정(4건)

재활용이 원활한 선순환 자원관리체계 구축

1인가구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아이스팩 충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SAP)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분해가 안 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 및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두 가지 방향(Two 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ESG 경영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운 SAP 아이스팩 사용저감 기반 마련

Track 1 생산단계

SAP 아이스팩의 생산단가(350원)가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단가(427원)보다 저렴하여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속도가 느린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SAP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313원/kg)을 부과하여 친환경 아이스팩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의 수요자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전환 1억9천만 개(아이스팩 생산량의 90%에 해당)

Track 2 소비단계

SAP 아이스팩의 경우 폐기물 관리를 위해 수거가 필수적이나 수거함 관리 및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고 수거함 위치 정보 공유 또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전국 3,016개 수거함을 설치하고 앱을 통한 위치 정보를 공유한 결과 아이스팩 2.7백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한국청소협회와 협업을 통해 세척교육과 세척매뉴얼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4,505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처를 다각화(전통시장 → 대기업, 중소기업)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특정 브랜드 표기 등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 보냉조기, 반려동물용 쿨매트 등으로 대체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이스팩 재사용 156만 개

전기차 폐배터리 선진관리체계 구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이 예상됩니다(향후 연평균 18,996개). 반면 폐배터리 회수부터 공급에 이르는 자원순환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민간 자원순환시장도 낙후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21.9월 준공, 4개소)는 폐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매각 등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재사용, 재활용 등 다양한 가치창출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신재생 자원의 생산, 소비, 재생촉진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순환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소형폐가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회수체계구축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전기·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일정비율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환경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과 니켈, 아연 등 6대 국가 전략 광물 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폐가전에 함유된 금속자원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희유금속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더욱이 현행 회수 체계는 대형과 소형가전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대형제품 만으로도 의무량 달성이 가능하여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소형폐가전의 회수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폐가전 재활용 가치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폐가전 회수체계 운영주체를 재활용의무량 달성이 목적인 기업 중심에서 제도운영기관인 공단 중심으로 전환하여 품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폐가전 전반의 회수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조유통업체, 지자체, 재활용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폐가전 재활용량 향상을 통한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및 순환경제를 적극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폐가전의 예상 회수 및 재활용량
460,807톤
 탄소배출 저감량
156,674톤 CO₂
 탄소배출 저감 편익
47억3천백만원

- 거점수거** 가전 제조사 직영매장(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과 휴대폰 판매사(KT대리점)에 소형폐가전 수거함 설치 및 폐휴대폰 무인수거기(민트 ATM) 인프라 활용
- 역회수** 제조·판매업자가 신제품 설치 후 동일 폐제품 회수 시 가정에 장기간 방치 및 보관중인 폐가전을 함께 회수
- 내집 앞 수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공동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내 소형폐가전 수거함 설치('21년) 20개 지자체 4,979개 → ('22년) 30개 지자체 7,000개(예상)
- 방문수거** 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무상방문수거서비스 대상을 환경성 보장제 대상제품 5개 이상에서 비대상제품 포함 5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가정에 장기간 방치·보관중인 폐가전 일괄 수거



민트 ATM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을 수도권자원순환센터로 인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계된 폐휴대폰을 완전 파쇄

폐자동차 내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지금은 회수할 수단이 없어 단순 폐기처리 되는 폐자동차 내부에 버려진 폐전자제품(내비게이션, 카오디오, 헤드드라이버, 차량용 진공청소기, 블랙박스 등)에 대한 재활용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폐차장), 그리고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동안 버려지던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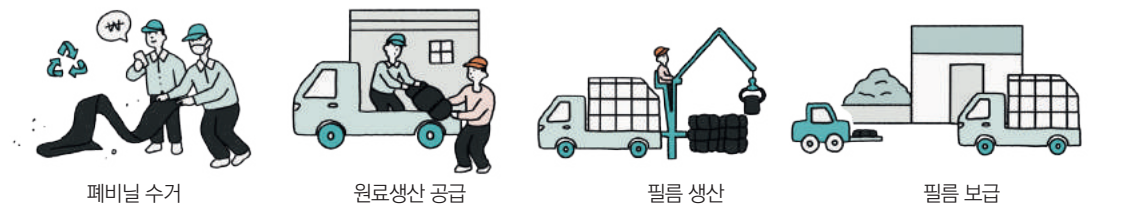
혁신기술을 통한 고급 재활용

영농폐기물의 놀라운 변신, 순환경제형 플라스틱 재탄생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0만 톤에 달하지만 다량의 이물질로 인해 처리에 난항이 있는 반면, 재활용 되더라도 고비용 대비 저품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술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공공-민간 협력 영농폐비닐 재활용 혁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적 재활용방식(MR)*을 벗어나 화학적 재활용기술(CR) 개발을 통해 기존 비닐 대비 인장강도가 108% 향상되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고품질 비닐이 새롭게 탄생되었고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즉 영농폐비닐을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플라스틱 원료(PP, PE)로 활용하여 도시락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재탄생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재활용산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연간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
39,077톤

22년 환경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MR : Material Recycling, CR : Chemical Recycling



버려지던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주인공으로 부활

선거 및 각종 홍보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그동안 재활용체계가 없어 골치덩이였습니다. 2020년 총선때 발생한 폐현수막만 1,739톤에 달하며 2.5톤 화물차 기준 695대 분량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재활용율은 고작 23.5%였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처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버려지는 폐현수막의 연간 발생량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폐현수막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및 기업과 연계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서로 협업하여 생활용품, 친환경 섬유패널, 시멘트 소성용 연료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남산도서관 옥외공간에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독서공간 '남산하늘뜰'을 조성

유기성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체계 구축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활용, 즉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수소경제 신사업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공단 탄소중립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단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편차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폐자원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20년), 바이오가스 축진법 제정 추진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21년) 바이오가스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신규 사업 확충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확대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기반 저탄소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워즈(EEA)
 아시아 최초,
한국 유일 특별상 수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더 나은 생활터전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와 미세먼지,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공단의 역할을 발휘한 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국민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단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속 건강위해요소 저감 지원 및 국민생활환경 안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생활불편 적극 해소

공단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갈등 완화를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만건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물품의 사전제공 및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등의 갈등 조기완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국내 최초로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음도 시험 법정기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타이어 소음도 신고와 등급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타이어 소음도 시험 주행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타이어 소음을 관리하여 도시소음을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공단은 석면관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민간 복지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5억원 규모로 100여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석면해체 및 교체공사 추진을 위한 대상선정 및 현장점검 등 기술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시설 이용자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내 라돈 측정을 통한 라돈 저감시공 지원

공단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실내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을회관 등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264개소와 주택 1,890개소에 대한 라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고농도 개소에 대한 라돈 저감시공 및 사후관리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측정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중 관련법 위반이 우려되는 영세시설에 대해 공단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 대상 110개소의 실내공기질 법정기준 전 항목을 현장측정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시설별 오염원영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컨설팅 전 20개소가 법적기준으로 초과하여 초과율이 18%로 나타났으나 개선방안 시행후 재측정시 기준이하를 유지함을 확인하여 컨설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소음도등급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



라돈 저감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를 통해 라돈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을 설명하는 리플릿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화학물질 유해성정보(GLP) 생산 노력

공단은 일상 속 유해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단은 원활한 정보생산을 위해 관련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5천 개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생산하였습니다. 정보생산을 위한 여건이 미약한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3천 개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화학물질검사를 신속히 수행하여, 국민 감염병 대응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운영으로 국민건강 보호

일상생활과 산업계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은 등록·신고하여 유해성,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 관리, 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리주체(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들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연구개발용 물질 등 8가지 사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연간 약 4만 건).

화학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공단은 2015년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안전진단으로 취급시설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방폭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화관법 컨설팅, 설치검사 사전지원, 업체 맞춤 개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안전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설비 개선·교체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시스템(safechem.or.kr)을 운영하여 각종 안전진단 업무의 신청 건 접수로부터 결과서 발급까지의 절차 전산화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디지털전환으로 만드는 미래 환경생태계

디지털전환 스마트 환경인프라 구축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의 국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제고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디지털전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은 반복적 업무자동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정확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업무환경과 환경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혁신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공단은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전담조직을 '22년 7월 구축하여 전략방향 및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선제적·맞춤형 스마트 환경서비스 구현,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디지털전환 기반 강화를 3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1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기관의 스마트 환경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제감형 신규 서비스 발굴 및 활용과 민간·공공 부문의 혁신적 비즈니스 촉진을 추진하며, 디지털 업무혁신을 통한 환경인프라·서비스 역량 강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조직과 디지털전환위원회를 활용한 전문성·성과관리체계 강화, DX 컨트롤 타워를 통한 조직·인력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 혁신 정보화를 전사적으로 실현하여,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비전	미래 환경을 디지털로 열어가는 한국환경공단		
3대 전략방향	선제적·맞춤형 스마트 환경서비스 구현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으로 혁신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반 강화로 경쟁력 향상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디지털서비스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환경 인프라 기업혁신 파트너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전반의 디지털전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품질관리 및 분석·활용 지원체계 확립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 고도화 지능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차세대 경영관리체계 구현으로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 활성화 전담조직 운영 및 실행력 제고 디지털전환 인적역량 강화
로드맵	디지털전환 강화·정착 단계 '22~'23	사업구조 전환 이행·발전 단계 '24~'25	디지털전환 고도화·완성 단계 '26~

똑똑한 하수도 관리체계로 효율적 수질관리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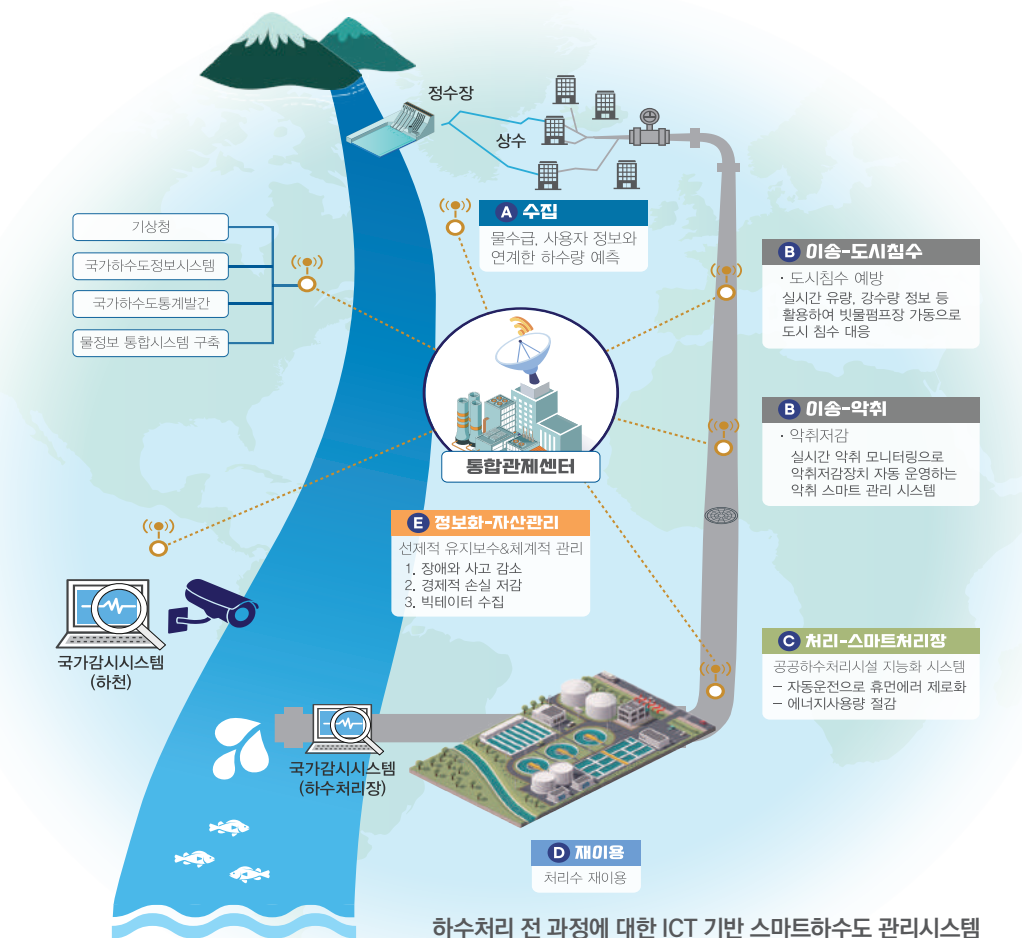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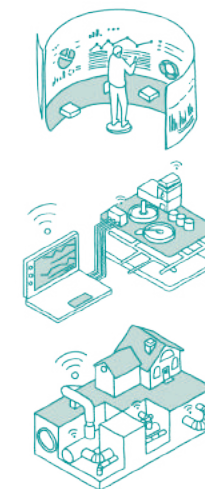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에 의존한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하수도 관리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수도관리시스템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자산관리, 스마트 하수관로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하수처리 전과정(하수의 수집-이송-처리)에 걸쳐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스마트관리시스템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정적 방류수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자산관리: 하수도시설의 오작동 또는 고장 발생 시 단순 보수·보강의 사후대응 방식에서 잔존 수명 예측, 최적의 시설투자계획 수립 등 사전 예방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급증, 빈번한 하수악취민원 발생 등 하수관로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CT)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실시간 하수관로 우수량, 악취 모니터링)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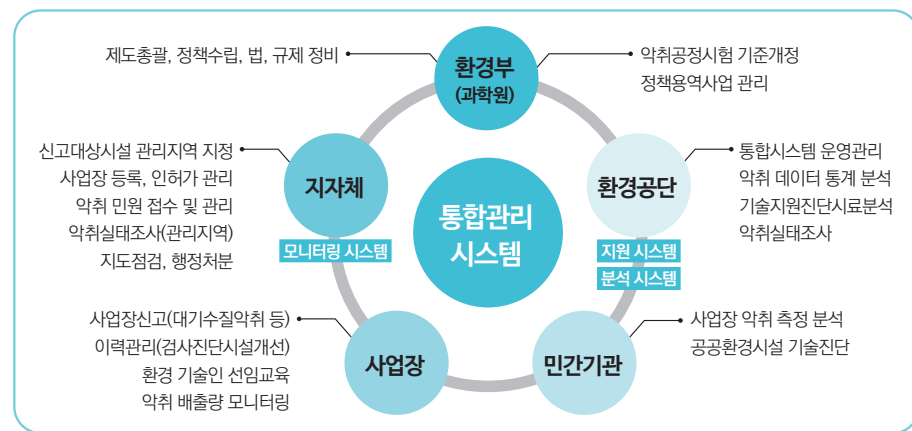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 기반 스마트하수도 관리시스템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주변의 악취저감 및 국민불편 해소

주거지역이 팽창함에 따라 쓰레기 집단처리시설 확대에 관한 민원이 10년 새 377%(11년 8,372건→'20년 39,902건)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해결 주체인 지자체의 해소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전문기관의 해결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공동해결이라는 시범사업으로 민관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 지자체 간 악취분쟁을 해결하고 관광지 쓰레기대란 발생을 해소하였으며, 제주시는 기존의 악취방지시설 비를 재활용하고 운영 및 관리 개선을 통해 지방비 예산 3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악취 정보 디지털전환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이 같은 성과는 문제해결 기술을 보유한 공단과 유관기관의 자금연계 확대로 악취저감 실행력을 강화한 결과이며, 200여 개 악취배출 사업장에 214억원 기술-자금 연계지원으로 악취발생 70%를 저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이후 시설개선 이행률이 7%P(57%→64%)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악취저감 사업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단은 이러한 악취저감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악취민원, 조사측정분석 자료, 사업장 현황, 지도점검 및 운영관리 이력 등 악취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

공단은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오피스를 합성한 '메타피스'를 통해 비대면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출장과 종이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저감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탄소다이어트의 친환경 업무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45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60개 물리서버와 재택현장출장 등 업무를 위한 535대 업무 PC를 가상화 장비로 대체하여 저전력 시스템운영체제를 구현하였으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캠페인 등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478.2톤 감축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및 메타데이터 40개 DB 등록의 성과를 창출하며 국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물리서버 1대 = 가상서버 약 8대
→ **약 87% 전기사용량 절감**

일반PC 1대 = 가상화 PC 약 10대
→ **약 90% 전기사용량 절감**



데이터 기반 환경서비스 고도화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환경서비스 효율 제고

한국환경공단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 기술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염발생원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비가시적 정보인 오염정도를 표현하는 다각적 환경정보 맵핑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관리 사각지대의 환경점검능력 제고를 위해 IoT 원격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스마트기기 부착 등 환경의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서비스의 효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대기환경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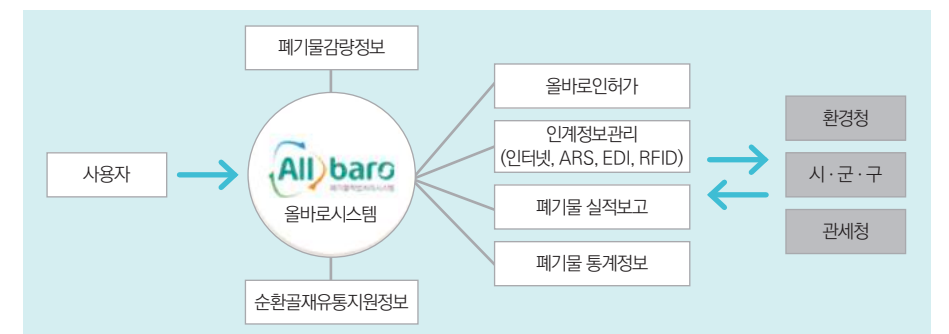
공단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단은 특히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평상시·고농도시·실내공기질 관리 등 상황별 맞춤형 행동요령 정보제공과 임산부·영유아·노인·기저질환자 등 대기질에 민감한 그룹별 상세 대응요령 제공,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사용자 위치기반 쉼터 안내 등의 환경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누리집을 통해 미세먼지 세부정보만 제공하였던 것을 에어코리아 모바일앱을 통해 시간별·측정장소별로 제공하고 연도별 황사현황과 환경위성영상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 365일 24시간 민원대응 및 위치기반 실시간 질의 응답과 대기환경정보제공을 추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전주기관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증명업무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증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기하며, 폐기물 처리증명 절차 등 행정업무의 간소화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는 폐기물인계정보관리,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고, 순환골재유동지원정보와 폐기물정보 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이 있으며, 2021년에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된 민원을 AI 대응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응대율 전년 대비
10%P 증가
기존 64% → 개선 74%
기존 9시간 → 개선 24시간

사업 편익
13억원(5년간) 창출



Social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책임



K-eco의 가치혁신, 상생과 포용의 사회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과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내부역량 다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시민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공단의 비전을 상생파트너인 지역사회, 중소기업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ESG 경영 중대이슈

중대이슈

- 중소기업 ESG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 지역사회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SDGs 목표



UNGC 원칙

1.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2.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3.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중점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단기사업 일자리를 제외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8,040명**으로 확대(전년대비 20% 상승)

채용목표제 운영

정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 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대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인권경영 시스템 **2년 연속** 인증

INTERVIEW



송장환
처장/한국환경공단 물관리처/환경영향평가사

공단만의 차별화된 ESG 경영시스템 필요

최근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업으로 하는 공공 기관이다 보니 공단의 모든 활동이 환경을 위한 활동이고, 전 직원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탓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단만의 ESG 활동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나 환경정책 수립 시 NGO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를 향한 노력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ESG 경영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올해 ESG 경영처가 신설되었으니 우리 직원들도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ESG 전담부서도 생겼으니 우리가 해왔던 ESG 활동을 평가하고 정리하여 2023년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면 그것이 곧 ESG 활동이 되고, ESG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단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상생하는 플랫폼 허브로서의 환경공단

ESG 경영과 관련하여 대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겠지만,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공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 고민만 많죠.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공정개선을 통해 더욱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제도적 지원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제도와 시민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매일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개선을 통해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의 개선과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분리수거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체계를 개선하거나 재활용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단순 편익을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제재하는 정책 제언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제도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환경 공단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의 허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공단의 ESG 활동 필요

저는 지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관의 안전보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을 알게 되었고, 혁신단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좋은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ESG 주요 이슈들 중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도 안전한 일터가 되어야겠지만, 공단이 관리하는 정책들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안전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 주요 이슈 중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 보호', '데이터 기반 환경서비스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국민들이 공개된 환경정보를 통해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은상
(전 시민참여혁신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래 비전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ESG 경영계획 필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한 공동 운명체이며 어느 나라도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많은 나라들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1.5℃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후위기대응에 동참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의 환경정책에 온도차가 있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환경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환경사업 대부분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특히 공단은 환경부문의 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중요성을 흔들림 없이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조응하는 일관되고 독립적인 공단이 되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특정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세계의 방향성은 이미 ESG와 RE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활동은 물론 공공기관의 사업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추진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배출권,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데이터와 인프라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TCFD뿐 아니라 TNFD까지도 국내 기업들이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해 자연기반 데이터까지 영역을 넓혀야 할 수도 있으니, 다각도의 수요조사를 통해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숙현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공단의 ESG 경영이 입주기업의 롤모델이 되어주길

저는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에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산업유형에 따른 ESG 위험관리나 대응 및 관리방안 등의 가이드라인이 공유되고,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탄소중립실현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무엇을 대비할지 산업별, 유형별 구체적 사례 제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회나 지배구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련 정보공개 확대,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 등 공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ESG 활동들을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를 위해 공단이 ESG 경영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 입주기업은 공단의 ESG 경영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공단이 ESG 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환경 분야 ESG 경영의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영패러다임 전환에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에용철 이사/일천산업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상생의 환경산업생태계 조성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국내 중소기업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 목표로 R&D 분야를 강화하는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OC기술마켓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설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 사업 2단계를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단은 국내 환경산업과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국가적 비전 달성과 이를 통한 사회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산업 생태계 선도기관				
추진전략	환경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협력사 판로확대 지원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제 · 협력 이익 공유제 활용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을 활용 및 구매확대로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구축 (SOC 마켓)

상생협력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환경전문기관의 역량을 살린 R&D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기술개발 ·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 등 3개 유형의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건의 협력이익공유제가 2021년 12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향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분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과 중소 · 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업(공단) · 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업(공단) · 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 기술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확대형 수익계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업형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포스터

스마트생태공장 보급 사업 2단계 추진 내역
30개소 지원(289억원) 및
 신개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에너지 절감 및
352명의 고용창출 효과

녹색혁신으로 중소기업 친환경 역량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친환경 · 저탄소 설비를 지원하는 스마트생태공장 보급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 및 폐열 재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 사업의 2단계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ESG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혁신 상생협력 및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녹색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친환경 · 저탄소 전환			오염배출 저감		작업환경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온실가스	수질 · 대기 ·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기타(녹지)
스마트 생태공장	189% 증대	65% 절감	49% 저감	66% 저감	55% 저감	40% 저감	3,097㎡ 확보

판로개척으로 물산업 분야 어려움 해소

해외 수요기관들은 물기술 관련제품 구매 시 자국 내 운영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물기업의 85.5%가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실증을 위한 비용조달이 어려워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21년 물기술 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선정하여 현지실증 비용 2억 6천만 원을 지원, 수혜 중소기업의 153억 원의 매출 견인과 해외 실증사업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야기한 환경변화에 자력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동 · 중국 · 미국 · 호주 등 권역별 해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혁신기술 발굴로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공단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활성화를 도모하는 SOC 기술마켓의 17개 공공기관 운영협의체로 참여하는 공단은 2021년 공모전에서 환경분야 혁신기술 5건을 발굴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운영사례

공단은 환경개선 분야의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SOC 기술마켓 운영협의체로 참여 중에 있으며 2021년 SOC 기술마켓을 통해 대기환경 · 자원순환 · 수질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중온 폼드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 기술은 고온의 아스팔트 혼합물에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해 내부에 거품을 만드는 기술로, 아스팔트의 점도를 감소시켜 낮은 온도에서 생산과 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아스팔트의 주요 소재인 골재 자원 회수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현안 해결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국민 참여형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기업과 환경의 공존에 기여하는 이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이행을 돕고자 모범거래모델을 제시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K-eco 모범거래모델 정립으로 협력업체 권익보호 강화

공단은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발주 의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위탁사업 계약 프로세스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령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발주 및 긴급공고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 입찰 참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법성 강화	공정성 제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조
조달발주 의무대상 확대 법령위반에 대한 사전통제	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책임 준수 기업 우대 안전관리를 강화한 계약진행 협력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

공단은 전자제품 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환경정보장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50개의 지정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비대상 품목의 재활용 회수 기피 현상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실적 범위가 폐기전에 한정된 탓으로 재생원료 출처 확인에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용 실적인정 범위와 재생원료 사용실적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전 판매 3개사와 협업을 추진하여 약 1천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주거지역에 2천 개의 폐기전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전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탄소배출 저감량	탄소배출 저감편익
약 2만톤 CO ₂	약 5억 4천만 원

2020년 대비
긴급발주비율 **14.3% 감소**
긴급공고 건수 **24건 감소**

6개 제조기업에 대한
4,524톤 실적 인정
(전년대비 27% 증가)

소형 폐기전의 재활용량 전년 대비
31% 증가

기업의 경제적 효과
약 59억 원

탄소배출 감축량
9,653톤

폐유리 재활용을 위한 상생의 시장 모색

깨진 유리, 수입맥주병·와인병, 화장품 용기는 색깔과 재질이 각기 다른 탓에 약 65%의 폐유리가 단순 소각되는 환경 현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공단은 폐유리의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골재 수요처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하여 유리병을 활용한 건축골재생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유리병 회수실적 조사기준, 유리병 인공 골재의 낮은 수익성과 안전성 우려에 대한 검증 부재 등의 요인으로 재활용업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리병 재활용 실적인정 지침을 개정하고, 재활용업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유리 골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천연골재 대체재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확산 기여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사회적 비용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구현하는 K-환경 글로벌 공공서비스

환경전문기관의 역량을 갖춘 공단은 국내 기업과 함께 해외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기술이 열악한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협력프로그램(K-PPEP)을 운영하여 지구촌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책임은 국내의 동반기업과 함께 이행하고, 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공단은 2020년부터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에 상수급수 2차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되면서 기후와 환경 ODA사업의 전주기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적책임 이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게르지역의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 우간다 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도입 시범사업 및 키르기스스탄 ICT 폐기물 모니터링 도입을 위한 사업 등 물,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을 전파하는 공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단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시공평가를 시행하였으며, 3년간 발생한 사고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예방점검단'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참여하는 '시니어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ESG 경영 확산으로 사이버보안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빈틈없는 보안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제로달성을 위한 안전경영체계 확립

공단은 이사장 취임 이후 이사장의 안전경영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K-eco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고, 기관 경영목표인 중대사고 제로 달성·유지를 위한 '중대재해 제로와 산업재해 감축'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안전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조직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일터 구현

안전목표	중대재해 제로 & 산업재해 감축 ('19년 대비)			
	안전한 작업환경 (Safe)	튼튼한 협력구조 (Support)	튼튼한 안전역량 (Strong)	똑똑한 재난안전관리 (Smart)
'21년 추진전략 및 실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시설물 노후 시설 보강 충충한 재난·안전 점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경영위원회 확대 운영 공단·협력사 근로자 안전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시공사 대상 현장 안전관리 강화 재해 및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재난대응 능력 제고 드론활용 수질오염 방제 효율성 제고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

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전담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전담 조직인 안전관리실 내 건설안전부를 편입하고, 안전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기존 안전관리실장에서 각 사업 상임이사로 격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안전은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조직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본사 외 4개 환경본부가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 연말까지 전 조직에 확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현장중심 안전관리 향상

한국환경공단은 현장의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현장중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차단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 및 경영진 참여 촉중한 안전점검망을 구축하고, 수요자 현장중심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작업허가 시스템, 작업수행 자동 로봇팔, 원격감시 무인드론 등 스마트 장비와 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공평가 시행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활동 추진

공단은 산업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시공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중 안전사고 현황 및 환경 위반사항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선제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여 안전한 환경과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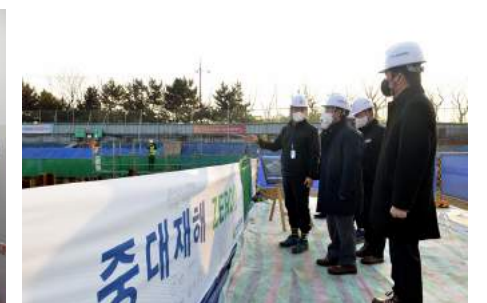
평가대상	평가목적	평가시기	평가결과활용	평가항목
총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참여자의 평가에 따른 경쟁을 통해 기술수준 향상과 설계 및 시공의 품질 제고, 건설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 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 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평가 항목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관리(안전, 환경 관리 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구조물의 안정성 등)

안전사고 점검단 운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공단은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소규모 작업장 300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공단 내 안전 자문조직입니다. 또한, '안전 소통채널 간담회'를 통해 매 분기 활동결과를 경영진과 공유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부터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니어 안전 패트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이 매년 100여 곳의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여부·위험요소 현장개선 조치·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점검



건설현장 점검

안전한 사이버보안체계 확립

한국환경공단은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결점 사이버보안으로 안전한 환경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단은 정보보안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정보보안 감사대상 산하기관(준정부)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무결점 사이버보안으로 안전한 환경정보서비스 제공		
전략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호 활동	사이버 침해 대응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전담조직 신설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내부통제 강화 유관기관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정보보안 위협 관리 新 위기상황 선제적 대응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인식 수준 보안교육 이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침해 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조직과 관리체계 수립

한국환경공단은 공단 최초로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인 정보보안부를 설립하였고, 보안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단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개인정보 상시 점검, 해킹메일 모의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였으며, 4개 기관의 협업으로 사이버보안 강조 주관을 운영하여 사이버보안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공단은 정보유출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3단계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체 보안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내부 사이버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공단과 환경부, 나아가 국정원 간의 사이버위협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악성메일 · 웹해킹 · 시스템해킹 대응 훈련을 통해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단계	1단계(공단)	2단계(공단↔환경부)	3단계(공단↔환경부↔국정원)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정보수집 비상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침해 확인 · 분석 사이버공격 즉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실시간 자료 전파(전용망)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보안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사이버안보센터
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악성메일 배포, 도상훈련 + (정보시스템) 웹해킹, DDos + (자산)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정보보안 감사 준정부 1위

정보손실, 침해사고, 개인정보 · 업무유출제로

지역사회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시민참여를 위해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러온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아이스팩, 일회용 용기 등 플라스틱 폐기물처리가 환경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공단은 환경부담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두루 해결하는 <플라스틱 Free 캠페인>을 2020년 추진, 성공적으로 이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본 사업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주도할 환경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신선식품 주문량이 증가하자 일회용 용기를 비롯한 미니플라스틱폐기물 배출이 급증하였습니다. 공단은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아이스팩과 미니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활성화하여 지역상생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내 그릇 사용 캠페인>으로 지역 환경의식 제고

일회용 용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지역사회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 그릇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서울시와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강남구로부터 시작하여 서울 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1,173개 식음료 매장의 협력기업을 확보하였으며, 캠페인의 확산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플라스틱 Free 캠페인> 전국 확산

공단은 2020년 추진하여 지역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의 결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여 2021년 17개 광역 거점 지역에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맞춤형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니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작은 크기 탓에 선별이 어려워 잘 재활용되지 않는 미니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내 노인일자리 주요 기관을 포함한 9개 기관의 다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단은 시니어클럽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 대상 미니플라스틱 수거관리 및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총 132개의 노인일자리 창출하였으며, 시민단체를 통한 수거, 재활용 및 제품 소재 개발, 청년스타트업 등의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 및 판매 · 기부를 위한 연계망을 구축 · 지원하였습니다.



<내 그릇 사용 캠페인> 포스터



지역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미니플라스틱 수거관리를 위한 노인일자리 132명 창출

국가 환경정책을 선도할 청년 인재육성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환경인재를 꾸준히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으로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창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ESG 환경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미래적응형 그린인재 양성

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으로 2024년까지 4,929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대응하고자 5개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611명의 미래적응형 그린인재를 양성하였고, 141명의 취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구분	합계	특성화대학원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후변화	폐자원 에너지화	통합환경 관리	국제환경	온실가스	생매관리	물산업 (신규)
양성(명)	611	41	148	81	25	109	117	90
취업(명)	141	24	21	6	18	53	8	11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 홍보 포스터

대학연계 환경인재 육성

공단은 ESG 환경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물산업 인재육성을 위해 영남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추진하여 대기 환경분야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창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공단은 2022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거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청년창업기업지원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지역 내 환경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업력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농협인천영업본부와 함께 협업하여 실무자 멘토 매칭,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며, 우수기업 3개사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렇듯 인천지역의 환경분야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분야 청년창업 육성사업 우수기업 선정 성과평가회

미래적응형 그린인재
611명 양성 및 **141명** 취업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수립한 5개년 'K-eco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포용적 성장 선도 기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뉴딜·혁신성장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성장미래투자형 일자리

공단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대응하는 뉴딜전략체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국조직의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과제와 연계하였는데, 이를 통해 2020년 대비 24건의 그린뉴딜 사업과 9건의 디지털뉴딜 사업으로부터 실행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공단은 물환경산업의 사업 추진으로 3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미세먼지 공공데이터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뉴딜을 추진하여 175명의 고용을 달성하였으며, 미래 환경인재를 양성하는 휴먼뉴딜 사업을 통해 14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239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친환경 인프라 구축·탄소중립 실현기반 조성사업 • 스마트 하수도관리 체계 구축 • 환경중소기업 혁신 기술 실증화 지원	미세먼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에어코리아 대기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지원	미래적응형 그린인재 양성 • 특성화대학원 운영 •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인프라를 이용한 공단사업 활성화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시설 관리 • (인천) 화학안전관 시설 관리 • 영농폐비닐 민간위탁 수거사업소 유인

지속가능 일자리를
2020년 6,686명에서
2021년 **8,040명**으로 확대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취약계층 등 공단과의 이해관계 범위를 폭넓게 아우르는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기사업을 제외한 지속가능 일자리를 2020년 6,686명에서 2021년 8,040명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제고되는 사회공헌 활동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의 역량에 기반하여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인식을 제고하면서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ESG 경영 실천 사회공헌활동과 장난감 순환 사업 등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의 위협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복지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역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마크

I-SEIF 기금 조성을 통한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통을 분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인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경영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22년 까지 총16억 5천만원의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조성하여 64개 기업 대상으로 1천만원의 사업 개발비 무상지원 및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소셜 커머스 입점지원, 온라인 판매 기획전 개최, 공공구매 상담, 클라우드 펀딩 지원, 멘토링 및 공동교육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기금(I-SEIF) 우수 펠로우 선정식



I-SEIF 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I-SEIF 펠로우 운영 성과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4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I-SEIF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금융지원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1년 I-SEIF 4기 펠로우에 선정된 17개 기업의 평균 매출 69% 증가, 15명의 고용 창출, 스타트업 평균 매출 86% 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1천만 원의 무상지원금으로 공간이 더 넓은 병 장고를 장만하여 급증하는 주문 물량에 대응할 수 있었고, 위메프 입점지원, 상세페이지 제작 및 기획전 개최, 멘토링 등의 알맞은 지원책으로 사업 대응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3기 I-SEIF 펠로우 선정기업 '매일생선' CEO

아이들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장난감 자원순환 사업

국내에서는 매년 12만kg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중 40%의 장난감만이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장난감의 자원순환에 대해 고심하였고,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하여 국내의 취약계층 아동에 나누는 기업 '코끼리공장'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4개 초등학교를 선발해 장난감 수거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기부와 재사용을 위한 공급처로 육아지원센터를 선점하였으며, 기업의 후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난감 자원순환 사업



장난감 자원순환 사업_시니어 봉사

청바지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섬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섬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지구를 바꾸는 BLUE! 청바지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업으로 총 2,534벌의 청바지를 수거하고, 이를 5개 재활용업체에 기부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달함으로써 섬유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상생과 포용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청바지 재활용 캠페인 참여활동

교통안전 Safety-Zone 설치

공단은 2022년 인천지역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3개의 학교 앞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세이프티 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보호구역 테이프, 옐로우 로드 라인,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하여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세이프티 존 설치

인천 도서지역 태양광발전 장학사업

'해를 품은 에너지 자립학교'는 인천 도서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및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연간 약 600만원의 장학금(25년간 1억 4천만원)을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인천시, 인천시남부교육청,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한솔테크닉스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태양광발전이 기존화석연료 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7,000만원 상당의 대기질 개선효과와 연간 1,000만원의 화석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를 품은 에너지 자립학교 현판식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치혁신

한국환경공단은 성비위와 갑질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존중과 포용을 실현하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 가치혁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공유하는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수평적 문화 조성으로 인권경영 선도

공단은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의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인권경영 선도

전략	인권경영제도 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인권존중문화 확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규범 강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비위 관련 인권침해 예방 ·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인권의식 제고 교육 실시 소통 · 조직문화 개선활동 실시

성비위·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과거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건의 유형과 징계수준,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고 고충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예방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자 맞춤형 교육과 고충상담원 상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성비위 예방을 위해 3단계의 대응체계(예방-구제-재발방지)를 마련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인식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복잡해지는 성비위 양태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외부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

공단은 2021년 중합청렴도 4등급의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단 내부에서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MZ세대의 불만 현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Z세대의 시선을 빌려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타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의 날'을 부서별로 제정하고, 1부서 1청렴과제를 접수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본부의 확대에 증가하는 인권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요구가 증대되는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2020년 4개 사업에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2021년 5개의 사업과 1개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항목과 강제노동 금지 관련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인권보호 활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MZ 세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한국환경공단 MZ세대 여성직원그룹과 남성직원그룹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다룬 주제는 공단의 ESG 경영과 ESG를 위해 실천하는 활동들, 그리고 개개인이 속한 부서의 조직문화와 디지털전환이었습니다. 포커스 그룹인터뷰 특성상 인터뷰이는 특정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엔 여러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MZ세대 여성그룹

ESG 경영에 대한 대외적인 공단의 역할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업무에 ESG 관점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가중되어 부담이 크고 부서별로 의견이 제시되다보니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부서 간 연계성을 확보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방향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조직의 의지가 분명하고 그러한 사례를 공모 접수하기도 했으나, 본 공모 참여자가 주로 막내직원들이라보니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오랜 관행이 접수되긴 어려웠습니다. **조직문화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직원의 목소리를 두루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MZ세대 남성그룹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 등은 인사과에서 매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해 온 지침의 개정사항을 보면 2차 피해방지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조직 내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난다는 방증일 겁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인권경영을 고도화해 나가는 흐름이니 우리 공단도 이를 통해 좀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조직문화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과거엔 같은 기술직으로 입사하더라도 남성은 사업, 여성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성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꽤 수평적인 분위기라 생각해요. 다만, 일·가정 양립이 제도적으로는 잘 마련이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육아휴직 등 제도사용에 있어 여직원들이 많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 또한 자유롭게 육아휴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ESG를 생각하면, 우리가 공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ESG를 달성하느냐 보다, 각자의 사업을 어떻게 ESG로 녹여낸 보고서를 쓸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소모적인 고민보다, 어차피 공단이 하는 일이 거의가 ESG 활동이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전환은 ESG 실천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업체와 주고받는 서류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우리가 어느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검사한 후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문서들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문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애초 생산자체를 전자문서로 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 다양성 존중

한국환경공단은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고른 임원 성비율을 위해 임원임명목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권고 목표(임원 여성 비율 23%) 달성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2021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임원선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임원 후보자 적극 발굴을 위해 모집공고 매체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사회취약계층에서 4명을 선발,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 자체목표 수립

공단은 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임원임명목표제를 수립하고, 2021년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2.9%로 확대하여 여성임원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임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여성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매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단은 상임이사의 연임 결과과정에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직무수행실적을 토대로 2021년 여성 상임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공단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임원 자체목표 수립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모집공고 매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을 위한 5개년 임원임명목표제 수립 (2021년 여성비율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성별 위원의 비율이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고매체 확대

여성임원 후보자 육성

공단은 2021년 임원 선발 당시, 21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가 단 1명이었기에 여성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이를 위해 채용과 승진, 교육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목표제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여성승진자의 비율을 25%로 확대하여 2급 여성관리자가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예비관리자 4급 여성 2명에게 석사과정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형평적 채용

공단은 저소득층·경단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용목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우대가점 등 채용여건을 마련하였으나 저조한 지원율과 전형단계별 불합격 등의 사유로 인해 최종합격자 배출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여 2021년 채용목표제로 적극적인 채용을 실시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달성하였습니다.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한국환경공단은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후, 공공기관의 더 큰 사회적책임을 요구하는 외부환경과 세대 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내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전환과 ESG 등 정부정책 이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소양과 자기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인재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RD비전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환경전문인력」 육성			
인재상	참여와 열정, 창의와 융합, 책임과 존중의 K-eco 人			
인재육성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중심 성장형 직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전환과 정부 정책 이행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소양과 자기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듀테크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실현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환경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의 인재육성 실현

공단은 임직원의 평등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고졸직원의 경로설계와 적응을 돕기 위해 '커리어패스'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 기업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을 위한 교육관리체계와 고객응대 공무직원을 위한 감정관리과정(EAP)을 신설 하였습니다.

환경전문기관 교육인프라 구축

공단은 2021년 12월 환경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국가 환경정책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환경관련 법·제도 설명회 등의 행사를 유치하여 국가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전경



미래로 나아가는 화합의 노사관계

한국환경공단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와 존중·소통과 공감·전사적 노무역량 강화·노사의 사회적책임이라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대국민에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전	미래지향적 노사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질 개선			
전략방향	참여와 존중	소통과 공감	전사적 노무역량 강화	노사의 사회적책임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협력 노사문화 선도 합리적 교섭문화 체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대 형성 의사소통 미래지향적 노사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전문가 양성 현장완결형 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사문화 노사동반 사회적대화 활성화

통합노조 출범

공단은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설립된 이래, 두 기관의 상이한 직급체계와 임금수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단은 노사관계 회복을 도모하며, 2021년 2월 양 노동조합이 통합추진약정을 체결하고, 3월 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통합추진 초기, 노조통합추진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두 노조가 대등한 입장에서 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사파트너십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법적·행정적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와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2022년 1월 공단의 통합노조가 출범하였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ESG 경영전략 노사합동 선포식을 통해 협력관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사문화 우수부서 평가 시 가점지표를 신설하고, ESG 경영의 이행을 위해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동이사제의 도입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통합노조 출범식

노사협력 수준진단 2020년 대비
80.9점 → **81.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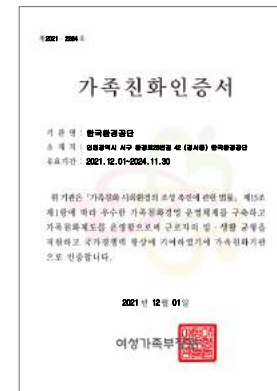
노사관계 교육만족도(신설)
79.8점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한국환경공단은 구성원의 일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2회 추진되고 있는 조직문화 자체 평가(청렴문화지수)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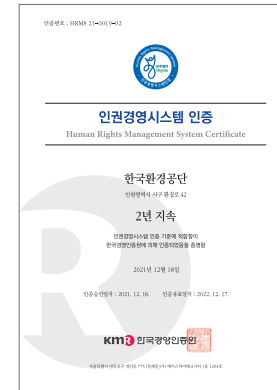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공단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저녁이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최초 인정받은 이래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으로 4회 연속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임신부를 위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고 과중한 연장근로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였고, 2020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업무용PC의 전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가족 친화적 삶을 응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근로환경 개선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 보육시설의 긴급한 휴교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 폐쇄로 생긴 자녀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새로운 근무환경으로 다양한 복무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조기퇴근제도(월~목 초과근무 후 금요일 조기퇴근)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웰니스* 강화

공단은 임직원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웰니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공단은 임직원의 가계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고은행의 협약대출 한도를 추가하고, 신용상품의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콜센터 '건강비서'를 도입하여 임직원에게 24시간 건강상담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근육이완 수지침요법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비대면 걷기 운동을 장려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공단은 공단 최초로 직무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근로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단은 근로자로 하여금 공단·EAP협회의 '마음보듬이'와 인천-EAP협회의 '마음사이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136명의 전문심리상담과 집중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웰니스 : 건강을 추구하는 삶의 문화와 행복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



Governance

투명경영을
지향하는
지배구조










K-eco가 구현하는 공정과 존중의 리더십

한국환경공단은 ESG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다지고자 하며, 이를 위해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체계를 확립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엄격한 감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해 이사회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단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환경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단 경영에 대국민 참여를 실현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력을 통해 더 높은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중대이슈

중대이슈	SDGs 목표	UNGC 원칙
•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	 	10. 기업은 부당이익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공정한 기회 제공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	  	8.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중점성과

<p>윤리경영체계 고도화</p> <p>채용비위 제로 달성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인사부문 2년 연속 '만점'</p>	<p>ESG 자율공시 정보제공 확대</p> <p>23개 확대 (전년대비 383% 증가)</p>	<p>대국민 소통 활성화</p> <p>2021년 혁신박람회 공공기관 TOP1등 대의 우수사례 선정</p>	<p>이사회 역할 강화</p> <p>경영환경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K-eco 미래발전위원회 신설 운영</p>
--------------------------------------------------------------------------------	-----------------------------------------------------------------	---------------------------------------------------------------------------	-----------------------------------------------------------------------------

INTERVIEW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설정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기업에 대한 설비와 정책지원,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발빠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저변 확대를 위한 공단의 새로운 역할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과 이행체계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공단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은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감축효과가 낮은 사업은 사업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로 공단은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술업무와 감축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원업무,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배출권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지원, 인프라 조성 금융, 공정한 전환 제도 운영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지정으로 기금운용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노력

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지원, '기후대응기금' 운용 업무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시책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려면 이해관계자 소통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은 국가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한국환경공단



황순영
처장/한국환경공단 디지털혁신처

지속가능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전환으로 혁신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즉 공단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또 기후위기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간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 보장하는 품질관리를 통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등 '모든 환경데이터가 연결'되는 지속가능경영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ESG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핵심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디지털혁신이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국민 소통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의 중요성

저는 한국환경공단 대학생기자단 7기 출신으로 지금은 환경부 지정 지역환경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SG가 글로벌한 이슈다 보니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으로 ESG 관련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ESG 대응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ESG가 기업의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단의 ESG 이슈 중 '지역사회 환경경영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공단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역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ESG 이슈 중에서 환경(E)만큼이나 환경을 통한 사회적(S) 성과, 즉 사회적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사회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고 ESG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른 공기업임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환경캠페인을 통해 홍보도 하고, 그 실질적인 성과를 설문조사 등의 피드백으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용
(전 대학생기자단)/환경부 지정 지역환경기관



송영석 센터장
센터장/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ESG 경영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한국환경공단

공단과 함께 약 3년 전부터 청년 환경기업 창업 관련 사업을 점차 늘려오면서, 특히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기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환경문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과의 협업은 청년 환경기업 발굴과 성과 측면에서 서로 만족도도 높고 시너지 효과도 높았습니다. 예컨대 폐기물 관리나 이를 통한 순환경제를 만드는 일은 아직 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관련 기술이나 지원체계를 더 확대하면 사회적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청년창업의 좋은 기회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고, 청년들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사업화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단이 ESG 경영의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 환경경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ESG 경영에 있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성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리스크관리, 기관의 최우선 핵심가치인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안전리스크 등 기관 리스크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한 윤리경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가치 의사결정에 있어 미래 혁신기반 위원회를 조직하여 혁신의 최전선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재무구조의 안전성 고도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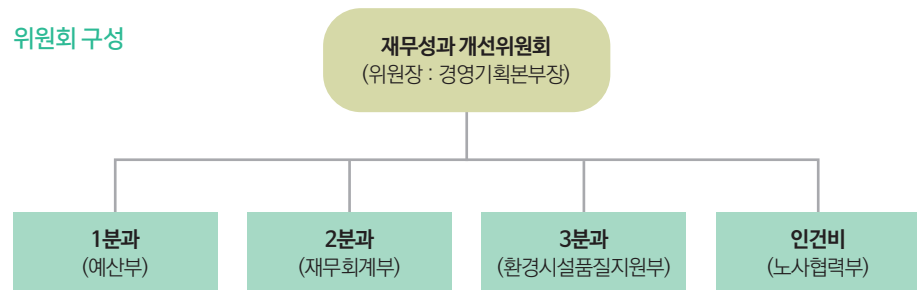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한 투명한 재무구조 마련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단은 재무리스크 점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관의 수익성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위험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재무위험 측정, 평가를 통해 선제적인 재무리스크 대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p>재무리스크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무위험지표 선정 및 기준 설정 선제적 리스크 대응 재무위험 측정 및 평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단위별 재무성과 관리방향 설정 	<p>재무성과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성과개선위원회 운영으로 사업단위별 예상손익 주기적 모니터링 	<p>투명한 자금운영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점을 반영한 자금운용 방향설정 및 경제환경에 따른 이자수익 극대화 	<p>자금사고 대비 통제강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회계역량 강화 교육으로 잠재적 리스크 차단 최근 자금사고 발생유형별 사전통제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크롬기반의 자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출과정 보안성 및 통제 강화
---------------------------------------------------------------------------------------------------------------------------------------------------------------------------------------------------	-----------------------------------------------------------------------------------------------------------------------	-------------------------------------------------------------------------------------------------------------------------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성과 개선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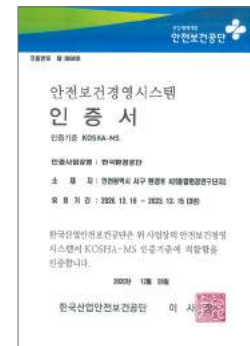
공단은 기관 재무상태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성과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주기적인 손익점검과 영업손실 원인파악으로 사업별 수익인식 기준과 이익증대 방안을 점검하여 기관 재무성과 및 안전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

- 사업별 수익인식 기준 및 이익 증대 방안 점검
- 부서별 경상경비 관리로 기관 운영비용 절감 노력
- 사업비 선수령 용역의 연도 중 완성도 제고를 통해 수익 증대 및 부채 감소
- 부서 내 채권관리 및 대손위험 파악, 예산 외 비용 등 비경상적인 재무위험 관리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노·사 합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안전경영체계 확립

한국환경공단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K-eco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재수립하여 전사에 배포하고 경영진 교육에 활용하는 등 구성원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 전담조직 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공단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만들어 안전관리업무 수행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본사 외 4개 환경본부로 확대 인증하였으며, 2022년 연말까지 전 조직에 확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p>안전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p>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안전보건경영 철학을 반영한 노사합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22.1) 	<p>안전근로협의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운영 (9개사 → 40개사)
-----------------------------------------------------------------------------------------------------	------------------------------------------------------------------------------------------------------------------------------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작업허가시스템 운영

공단은 공사현장 대상 스마트 작업허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스마트 작업허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작업허가시스템이란 안전관리자 중심의 기존 시스템과 달리 관리자 뿐만아니라 현장근로자도 작업내용, 위험성 등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자의 승인하에 현장에 출입해 안전작업을 위한 정보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실시간 공사현장 모니터링 및 위험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솔선수범 안전관리

이사장 취임 이후 이사장의 안전경영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K-eco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고 노·사합동으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27일 이사장이 참여하는 '안전 소화행의 날'로 지정해 안전생활화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이사장 및 경영진 참여 안전소통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안전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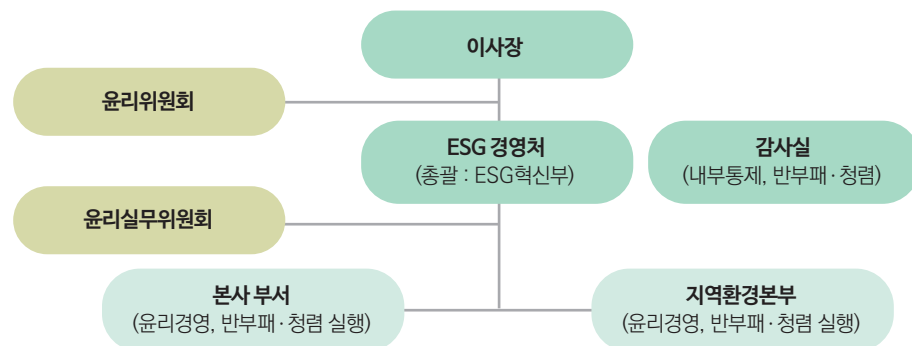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윤리경영 주요 평가결과 분석과 반부패·청렴 수준진단을 통해 2022년 「청렴혁신 종합대책」과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렴혁신 종합대책」은 국민 신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진이 주도하에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하여 반부패·청렴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의거하여 기존 윤리경영 추진내용을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조성과 국민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공단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따라 기존 체계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윤리경영 표준모델에는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협 파악, 윤리위협 통제활동, 내·외부 의사소통, 윤리경영 모니터링의 6대 핵심요소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윤리경영 문화조성으로 국민신뢰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추진과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21대 세부추진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목표	지속가능 윤리경영 문화조성으로 국민신뢰 제고	
	6대 핵심요소	추진 과제
윤리경영	윤리의식 확립	1. 최고경영진 윤리리더십 강화 및 임직원 윤리경영 내재화 2. 윤리문화 대외 확산으로 윤리경영 생태계 조성
	관리체계 구축	3. 윤리경영 전담부서 구성 및 청렴혁신추진단 운영 4. 이해충돌방지 대응 윤리규범 고도화 및 실행력 제고
	윤리위협 파악	5. 윤리위협 요인 식별 및 위험도 계량화 6. 공통/일반/고유/핵심 윤리위협 도출
	윤리위협 통제활동	7. 관리부서 주도 맞춤형 윤리위협 통제활동 설계 및 시행 8. 공통/일반/고유/핵심 윤리통제활동 설계
	내·외부 의사소통	9. 내부 의사소통: 공익신고센터, 대나무숲, 새로그침 10. 외부 의사소통: 경영공시 확대, UNGC 등 소통 확대
	윤리경영 모니터링	11. 윤리경영 모니터링: e-감사, 청렴예보제, 조직문화진단 12. 윤리경영 환류: 우수사례 인센티브/포상, 개선사항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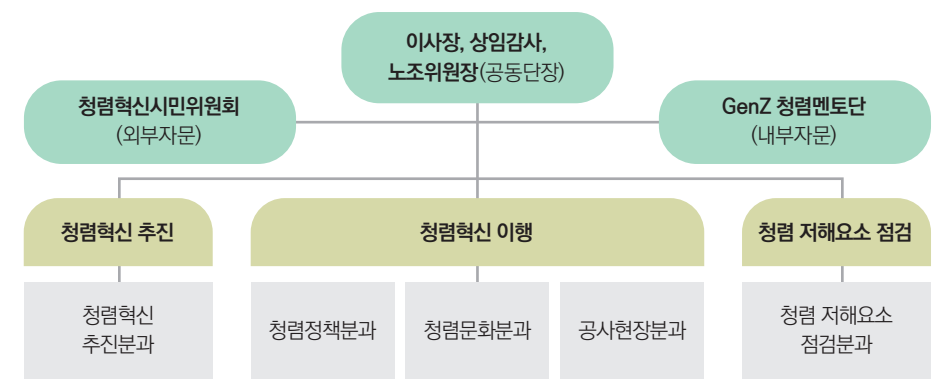
윤리경영 체계도



청렴혁신 종합대책 및 반부패 시책 추진

한국환경공단은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정·소통 중심의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사장, 노조위원장, 상임감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Z세대 직원 24명을 청렴멘토로 위촉하고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는 내부자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시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청렴·윤리 저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청렴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혁신추진단 체계도



윤리인권경영 보직자 교육



청렴실천다짐 챌린지



UNGC BIS-임팩트포럼

윤리리더십 강화 및 윤리문화 내재화

CEO 윤리경영 특강 등 관리자 윤리리더십 강화

공단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인 환경개선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소양과 책무인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CEO 특강 등을 비롯한 보직자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윤리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솔선수범 청렴실천 챌린지 등 윤리문화 내재화

공단은 청렴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노조위원장을 주축으로 보직자의 '솔선수범 자발적인 청렴실천다짐 챌린지'와 전직원 '윤리행동수칙 실천 다짐'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그침, 청렴명함, 분기별 Clean K-eco 소식지, 청렴라이브 콘서트, 신입직원을 위한 내규정보 안내문(친절한 청렴씨) 등 윤리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윤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참여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는 부패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UNGC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기업, 공공기관, 국회,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해 나가고 기관 역량 강화와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입니다. 공단은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 강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투명경영 실현

한국환경공단은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발 앞선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4가지 전략 방향성에 의거하여 활발한 소통, 감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IT 기반을 마련하여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위험기반 감사 운영을 통해 기관 고위위험을 재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예방 강화로 윤리와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ESG 사회적책임 준수과제 이행으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전략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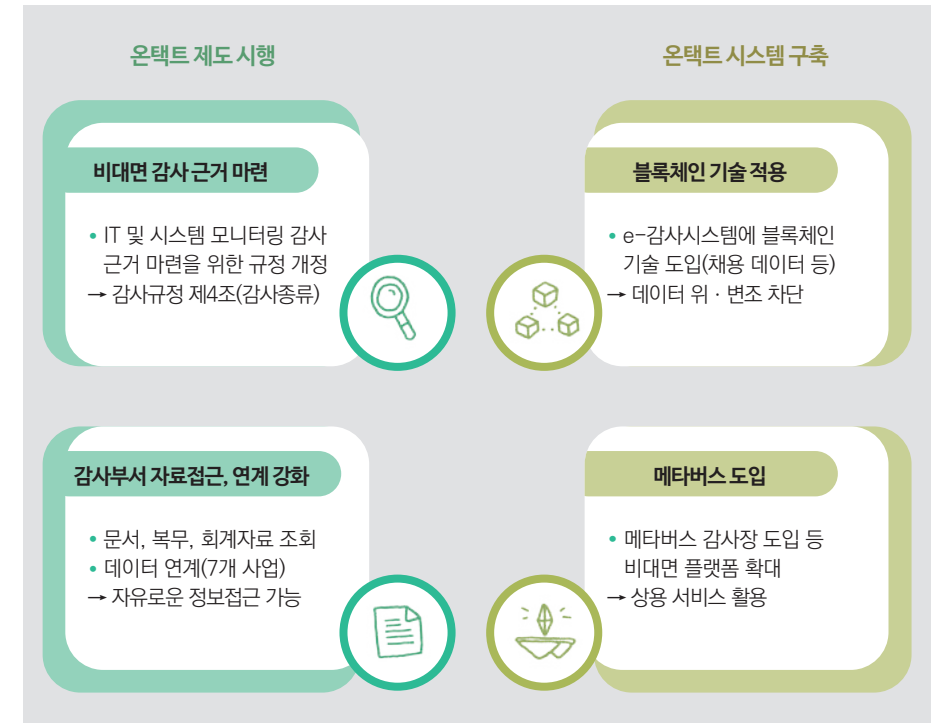
내·외부 환경 분석	의견 수렴	위험 진단	방향 설정
공직환경 분석	내부통제 수준 평가	경영 리스크 평가	신규 전략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 공정 공공환경 조성 예방중심 내부통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40개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63개), 사업(52개), 직무(506개) 리스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이해충돌 방지 IT 및 리스크 기반 감사

공단은 4대 감사전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환경 분석과 내부통제수준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단의 63개 조직과 506개 직무, 52개 사업의 경영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 이해충돌방지, IT 및 리스크 기반 감사를 신규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임직원들과의 소통, 예방에 초점을 둔 ‘한발 앞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한국환경공단을 실현하겠습니다.

목표	소통·예방하는 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K-eco 구현			
핵심가치	성장하는 감사	예방하는 감사	공정한 감사	공감하는 감사
전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대응 감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 중심 내부 통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공평한 윤리·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기반 사회적 책무 실천
신전략 과제	(신) IT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	위험기반 감사 운영	이해충돌 예방 강화	ESG, 사회적 책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상시 모니터링 GPS 연계 현장관리 감사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고위위험 재정의 고위험 종합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충돌 내부통제 장치 실태점검 이해충돌방지 종합 계획 수립 및 운영 매뉴얼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감사 아이디어 공모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설정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시대 중단 없는 내부통제활동을 위한 온택트(On tact) 인프라 구축



엄격한 내부회계 통제 및 윤리·준법 상담제도 활성화로 선제적 위험관리

엄격한 내부회계 통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법적 리스크 관리	윤리·준법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회계감사인과 협력 감사 실시 e-감사로 회계부정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불공정 방지 체크리스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자문 강화 (262건 → 316건) 변호사 1인 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법령 동향 게시판 신설 현장 밀착형 법무지원

내부 신고제도 처리절차 개선으로 익명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익명신고 처리절차 개선	모의훈련 및 자진신고	신고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명·무기명 신고 처리지침 제정(지침 제3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의신고(2회, 5,236명), 비위 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2차 피해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로 신고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환경규제 집중점검으로 현장의 이중규제와 행정낭비 요소 제거

-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기준을 단일기준으로 반영하여 규제 철폐
- 굴뚝측정기기 유사시험항목 통합으로 행정낭비 요소 제거

이해충돌방지 종합계획 수립

한국환경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이해충돌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해충돌방지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담당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동시에 기관 여건을 반영한 자체 매뉴얼 제작을 통해 전방위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윤리현장을 개정하였으며,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제도 개선

한국환경공단은 '이해충돌 내부통제장치 실태점검 특정감사' 등을 통해 리스크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학회·협회 후원, 부동산 매수, 기관 내규, 징계양정 등 공단 업무의 전방위에 걸친 감사활동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각 분야의 미비한 관리 기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 이해충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공단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초기에 임명하고 청렴감찰부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해충돌 전용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관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도 이행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제도를 초기에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관 및 전담조직 조기 확정
- 이해충돌상황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
- 제도 조기시행 근거 및 자체 매뉴얼 마련

이해충돌방지문화 내부 공감대 형성

공단은 임직원간 이해충돌방지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단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이슈를 반영하여 기관의 윤리현장을 개정하고,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온라인 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22.5) 前 조직 내 제도 이행기반 마련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문화 확산(제도 운영 실효성 7.53점 득점)

이사회 역할 강화 및 투명한 의사결정

한국환경공단은 미래가치 창출과 혁신적인 경영을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가져야 할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노사와의 협업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비상임이사 지원을 통해 공단은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방향 및 목표 설정

한국환경공단은 이사회 투명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를 목표로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이사회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비상임이사 지원 강화를 위해 비대면 이사회와 제언보고회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영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영목표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운영 활성화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운영방향	노동이사제 도입 기반 마련	비상임이사 지원 강화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 및 제언 관리 강화로 실질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이사회, 제언보고회 도입으로 참석률 및 공단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확대, 소위원회 신설로 전문성 활용 및 경영참여 확대 	
운영절차	소집 개최 알림 안건 송부	사전설명 개선 방안설명 확대 강화 정보제공 강화	개최 신규 비대면 이사회 개최 (원격회의/제9회, 제10회)	환류 신규 분기별 1회 제언보고회 개최

이사회

한국환경공단의 이사회는 공단의 경영상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이사장, 상임이사 5인, 비상임이사 7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임원 선출 시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 없고 투명한 선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의장(이사장) 안병욱(남)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1.12.31~*24.12.30) • 환경부 차관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감사 이세걸(남) 한국환경공단 감사 (*21.3.15~*23.3.14) • 서울시 정책비서관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상임이사 박찬호(남)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21.3.22~*23.3.21) • 환경부장관실 정책보좌관 • 한국폐기물협회 사무국장	상임이사 유승도(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21.3.22~*23.3.21)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상임이사 백선재(남)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22.8.30~*24.8.29)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 한국환경공단 물관리신진화처장	상임이사 정재웅(남)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22.8.30~*24.8.29)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 한국환경공단 자원재활용처장
상임이사 최철식(남)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21.9.27~*23.9.26) •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진단처장 •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장	비상임이사(당연직) 금한승(남) 한국환경공단 기후탄소정책실장 (*22.7.14~)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비상임이사(당연직) 박금철(남)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22.7.14~)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이윤섭(남)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20.10.5~)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청와대 환경정책실 부이사관
비상임이사(선임직) 민만기(남) 녹색교통 공동대표 (*20.10.5~)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상임감사 • 녹색교통 이사/공동대표	비상임이사(선임직) 박현정(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20.10.5~) •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 UNFCCC사무국 Programme Officer	비상임이사(선임직) 박숙현(여)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20.10.5~) •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협성대학교 및 수원대학교 강사	비상임이사(선임직) 최진봉(남) 충청남도예산 도민감시단 (*21.12.16~) •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 Ecolab-Nalco Ltd 상무이사

(*22.8.30 기준)

근로자대표 참관제 내실화로 노동이사제 도입 기반 마련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제4회 이사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공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2021년 제5회 이사회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 노력을 명문화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노동이사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지원강화로 안전·현안 이해도 및 참석률 제고

공단은 ESG 경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에 주력하고, 환경 전문성과 매체별 전문성을 보유한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비상임이사의 안전·현안 이해도와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설명회를 매 이사회 심의 전 개최하여 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선정하여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이사회를 정례화하고 비대면 이사회를 추진하였으며, 분기별 1회 제언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언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ESG 경영계획 등 비상임이사들의 관심사항은 별도 보고를 통해 공단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ESG·탄소중립·디지털전환 3대분야 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관 미래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ESG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디지털전환위원회 등 3대 분야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공단 미래발전 방향과 이행실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ESG 경영 내 재화를 위한 혁신방향 수립, 탄소중립경영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 수행, 스마트 환경서비스와 업무환경의 효율화 등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

 <p>ESG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ESG 경영 추진계획 수립, 이행사항, 성과관리 사항 검토 • 공단 주요업무 ESG 관점 추진사항 검토 및 혁신 방안 등 토의 • 공단 ESG 경영전략 검토 및 전략의 전사적 내재화 방안 자문 • ESG 국내외 동향과 주요 혁신·우수사례 검토, 미래발전 방안 등
 <p>탄소중립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탄소중립 추진계획 수립, 이행사항, 성과관리 사항 검토 •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 검토 및 혁신·발전 방안 자문 •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新정부 정책 대응방안, 미래사업 추진방안 • 공단 자체 탄소중립(기관 넷제로) 로드맵 수립 및 추진방안 자문 등
 <p>디지털전환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디지털전환 추진계획 수립, 이행사항, 성과관리 사항 검토 •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향, 업무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 자문 •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추진사항 검토 및 혁신·발전 방안 자문 • D.N.A 국내외 동향과 혁신·신사업 사례 검토, 미래전망 공유 등



탄소중립위원회



ESG위원회



디지털전환위원회



통합위원회

공정한 기회제공

한국환경공단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채용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관리 등 채용과 인사에 있어 다양한 제도와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및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리스크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수준진단으로 감사의 공정성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

공단은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투명한 인사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위원회 청렴도평가 인사항목 2년 연속 만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의 보완과 입사 희망자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용비위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기관의 청렴도는 인사과정의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전보 유예제도 도입, 공무직 직급체계 신설, 서류 및 면접심사에 직원 대표 참관 등의 실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인사항목에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전보, 평가,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	평가	특별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 이하,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본부장 및 단장에게 위임 전보 유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면평가 및 하위직 비율 확대 공무직 직급체계 신설, 승진급 부여, 평가기준 마련 비위 간부 직원에 대한 직위 미부여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별 배점비율 설정(서류30%, 면접 60%, 다면 10%) 2단계 서류심사 실시(1차 · 2차) 서류 및 면접심사에 직원 대표 참관

공정한 채용

공단은 다양한 채용전형과 더불어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채용정보제공 확대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이 있으며 각 전형에 대한 공정한 접수절차 마련으로 채용비위를 원천차단하고 있으며, 공고 전 채용정보 사전공개 등 응시자들에게 채용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응시자 만족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8.06점 → 8.15점)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검수 외에 SI를 통한 추가 검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검수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의 기피 신청 절차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인사부분)
2년 연속 만점

K-ESG 연계 자율공시항목 범위 확대 (23개)

E 6개
S 7개
G 10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93.7점**
'우수' 등급

원문공개율 지속 상승
('20년 45.9% → '21년 51.2%)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본 업 수행을 통해 수집된 환경데이터를 민간영역에 확산하고 환경서비스를 고도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등 정보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관운영 정보의 투명성 제고

공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공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발생한 공시오류 전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과 점검 부서 간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공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K-ESG 연계 자율공시를 개선하고, ESG 정보제공 확대 및 주기성 강화를 통해 적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자율공시 항목을 K-ESG 연계 항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0년 6개 항목을 2021년 23개 항목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환경정보 공개 서비스 확대

공단은 환경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 간 정보목록 공개 시 오차를 축소하고,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목록 공개율 2.3%p 향상, 정보공개평가 비공개 적합성 '만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를 유도하고 무조건 비공개 처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율이 2020년 66%에서 2021년 85%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 주관 업무 지원 컨설팅에 참여하여 정책 및 조직의 분류체계 등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개소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지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환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공모전 개최

공단은 탄소중립, 환경보건, ESG 등 다양한 환경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상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환경 빅데이터 분석과제 사업에 활용하고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석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환경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 포스터

대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과 국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은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연령·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총 30인의 일반국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단의 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공단 사업 이행 점검, 개선방안 수립뿐만 아니라 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활동자 선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의견수렴방식	수렴 의견	요구건수	채택건수	채택율
시민참여혁신단	비대면회의	혁신과제발굴	6	6	100%
	대면회의	청년창업간담회	1	1	
	대면회의	혁신경진대회	1	1	



2022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족식

환경정보 제공 매체 다변화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존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 기반 소통 강화를 통해 환경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 확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이, 문자뿐 아니라 음성, 점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보 구현으로 사보의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괄적인 매체 활용 전략을 통해 환경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12회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공식채널 콘텐츠 <뉴퀴즈온더공단>



점자가 구현된 사보 표지

국민 참여 유도로 환경문화 확산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과 캠페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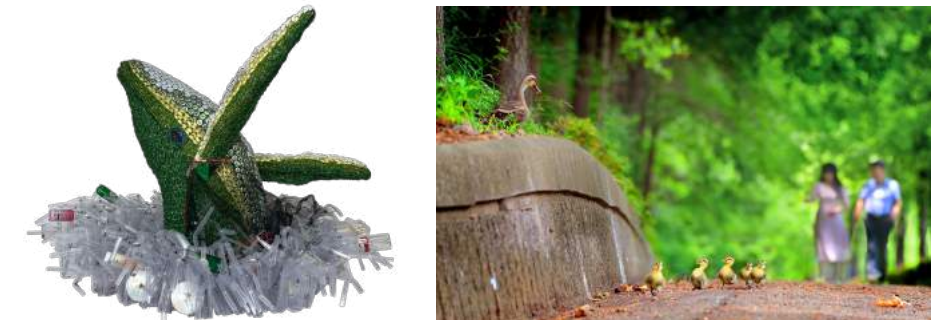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 및 확산을 통해 환경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국가 비전에 기여하는 국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공모전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국민에게 일상 속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덕역, 대전역, 춘천역, 광주공항 등의 공공장소에서 14번의 순회 전시회를 진행했고, 서울시청,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6번의 순회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환경사랑공모전 일러스트 학생부문을 특별부문으로 운영하여 환경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환경사랑공모전 포스터



환경사랑공모전 일러스트 부문 대상 <한눈에 보는 환경기념일>



환경사랑공모전 정크아트&업사이클링 부문 대상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
환경사랑공모전 사진부문 대상 <엄마, 내려와>

다양한 재활용사업 추진으로 국민참여 확대

공단은 폐플라스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키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 건축자재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남산도서관 옥외공간 공공시설물 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주로 장바구니나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되었으나, 친환경 도서관 건축자재로 새로운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기대됩니다.

섬유폐기물 재활용 : 공공구매 재활용 확산을 위해 섬유폐기물 재활용 팝업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전시회에는 사회적기업 17개소, 여성기업 5개소 등 22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수막, 소방관 방화복, 커피 마대, 청바지 등 섬유폐기물 활용 440여개 제품이 전시되어, 섬유폐기물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국민에게 다양하게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바지 재활용 : 공단의 임직원으로부터 입지 않는 청바지 2,534벌을 수거하여 <지구를 바꾸는 BLUE! 청바지 재활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청바지들을 재활용 기업 5개소에 전달하여 업사이클 제품의 재료로 활용하고,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달하여 재활용을 통한 환경현안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의 가치를 창출하여 환경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선한 영향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PPENDIX



지속가능경영성과

경제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자산	유동자산	백만원	93,411	98,497	100,323
	비유동자산	백만원	62,232	64,399	62,131
	자산총계	백만원	155,643	162,896	162,454
부채	유동부채	백만원	182,197	194,597	187,488
	비유동부채	백만원	60,553	64,328	53,446
	부채총계	백만원	242,750	258,925	240,934
자본	자본금	백만원	78,719	78,719	78,719
	이익잉여금(결손금)	백만원	[165,826]	[174,748]	[157,198]
	자본총계	백만원	[87,107]	[96,029]	[78,479]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익(매출액)	백만원	1,184,304	1,301,922	1,335,535
매출원가	백만원	1,161,351	1,278,189	1,305,375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14,361	15,728	17,932
영업이익	백만원	8,592	8,005	12,229
기타수익	백만원	881	3,821	3,498
기타비용	백만원	24,164	24,190	11,885
기타이익	백만원	197	157	315
금융수익	백만원	25,204	11,450	8,455
금융원가	백만원	2,283	1,516	899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손실)	백만원	8,426	[2,273]	11,712
법인세비용(수익)	백만원	4,782	9,424	4,001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3,644	[11,697]	7,712
기타포괄손익	백만원	[3,527]	2,774	9,838
총포괄손익	백만원	116	[8,923]	17,550
매출액순이익률	%	0.31	-0.90	0.58

환경성과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전력	TJ	132.58	130.90	228.51
	kWh	13,740,278.48	13,635,183	28,803,143
도시가스(LNG)	m³	263,418.89	287,665.20	315,270
보일러등유	ℓ	0	0	602
실내등유	ℓ	740	0	0
CNG(차량)	m³	4,806.85	2,001.33	2,408
LPG(차량)	ℓ	740.38	240.29	2,207
휘발유	ℓ	330,810.68	407,074.35	371,411
디젤	ℓ	459,216.03	129,878.26	273,523

에너지집약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본사	TJ/억원	0.011	0.010	0.017

*에너지집약도 = 총 에너지 사용량 ÷ 매출액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본사	톤CO ₂ eq	6,387	6,391	7,220
지역본부	톤CO ₂ eq	2,557	2,355	5,95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톤CO ₂ eq/억원	0.755	0.672	0.987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온실가스 총 배출량 ÷ 매출액

환경성과

환경법규 위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환경법 및 규제 위반	건	0	0	0
비금전적 제재조	건	0	0	0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본사	ton	35,597.52	34,990.54	44,894.89

폐기물 발생량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본사	ton	5,077.00	493.69	128.81

저공해 자동차 현황

구분	유형	단위	2019	2020	2021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	1종(전기/수소)	대	51	120	204
	2종(하이브리드)	대	208	156	127
	3종(배출허용기준 충족)	대	0	0	0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	1종(전기/수소)	대	37	72	92
	2종(하이브리드)	대	31	28	0
	3종(배출허용기준 충족)	대	0	0	0

녹색제품 구매실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구매액(A)	백만원	26,414	47,124	36,703
녹색제품구매액(B)	백만원	23,093	41,188	31,226
비율(B/A)	%	87.43	87.4	85.1

* 2021 총구매액은 구매이행계획 수치임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인원현황	남성	명	2,116	2,098	2,243
	여성	명	838	908	1,188
	여성비율	%	28.4	30.2	34.6
연령별	20대	명	587	612	641
	30대	명	937	918	1,039
	40대	명	749	800	982
	50대 이상	명	681	676	769
	사업소별	명	1,597	1,540	1,698
	명	1,357	1,466	1,733	
직급별	전체		7	7	7
	상임임원	남성	6	6	6
		여성	1	1	1
	1급	전체	41	43	45
		남성	41	43	45
		여성	0	0	0
	2급	전체	141	158	160
		남성	137	154	155
		여성	4	4	5
	3급	전체	328	356	375
		남성	312	326	332
		여성	16	30	43
	4급	전체	502	533	560
		남성	404	415	429
		여성	98	118	131
기타	전체	1,255	1,239	1,302	
	남성	783	729	716	
	여성	472	510	586	
전문직	전체	81	78	85	
	남성	79	76	84	
	여성	2	2	1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인원현황	전체		599	592	593	
	직급별	공무직	남성	354	349	343
		여성	245	243	250	
	고용형태별	정규직	명	2,355	2,414	2,534
		무기계약직	명	599	592	593
		기간제 근로자	명	186	591	304
		간접고용	명	2	61	89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인원	명	181	176	211
장애인 고용 비율		%	5.57	4.86	5.79	
신규채용	전체	전체	명	363	166	223
		청년	명	325	161	205
		여성	명	132	79	111
		장애인	명	13	0	11
		비수도권 지역인재	명	190	84	124
		고졸인력	명	14	7	16
	연령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명	104	58	56
		30세 미만	명	329	197	426
		30-50세	명	133	24	186
		50세 초과	명	5	3	39
이직 및 퇴직	전체	이직 인원	명	154	173	162
		이직 비율	명	5.2	5.8	4.7
		정년퇴직	명	49	48	39
		명예퇴직	명	11	5	6
	성별	남성	명	111	140	94
		여성	명	43	33	68
	연령별	30세 미만	명	34	47	73
		30-50세	명	49	61	78
50세 초과		명	71	65	11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전체	명	196	218	253	
		남성	명	66	70	85	
		여성	명	130	148	168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전체	명	172	180	102	
		남성	명	42	54	39	
		여성	명	130	126	63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수	전체	명	126	171	180	
		남성	명	32	41	54	
		여성	명	94	130	126	
	복귀율	전체	명	99.2	99.4	100	
		남성	명	100	97.6	100	
		여성	명	99	100	100	
	12개월 이상 근속률	전체	%	99.2	99.4	100	
		남성	%	100	97.6	100	
		여성	%	99	100	100	
훈련 및 교육	1인당 평균 교육시간(전체)		시간	128.9	112.4	91.4	
	고용유형별	기술직	시간	140.6	119.6	100.8	
		사무직	시간	132	111.1	92.2	
		운영직	시간	148.4	129	104.1	
		무기계약직	시간	99.6	90.6	71	
	1인당 평균 교육비용(전체)		천원	715	760	820	
	직급별 교육인원(전체)		명	51,924	76,889	100,269	
	윤리 및 인권교육	윤리경영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시간	10	20	21.06
		윤리경영 총 교육인원		명	3,051	7,782	3128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		%	100	100	100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집합/사이버)		회	10회/1회	3회/1회	1회/1회
		성희롱 예방 총 교육시간		시간	12,752	14,494	15,158
		성희롱 예방 총 교육인원		명	3,188	3,625	4,292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율		%	100	100	100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가입 인원	명	2,607	2,707	2,923	
	노동조합 가입 비율*	%	91.96	96.70	97.92	
조직문화	청렴문화지수	점	7.78	8.27	8.29	
이사회 실적	이사회 개최 횟수	회	15	13	15	
	의결 안건	건	30	29	29	
	보고 안건	건	12	8	4	
	비상임 이사 참석률	%	69	65	76	
동반성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백만원	929,523	1,025,730	816,10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구매실적	백만원	4,509	6,693	8,189	
	환경분야 동반성장 평가 등급	등급	DD	DD	우수	
	성과공유제 지원과제	건	23[1]	39[10]	41[12]	
	성과공유제 특허등록	건	12	16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실적	건	16,959	18,838	25,831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재해건수	건	7	9	4
건설현장 사망만인율		%	11.2	0	2.45	
산업안전보건교육		명	3,066	3,474	3,519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점	97.7	94.68	97.28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	0	0	0	
사회공헌	사회공헌(기부)	백만원	926	1,049	774	
이사회 구성 비율	성별	남성	명	12	10	10
		여성	명	2	4	3
	연령	30세 미만	명	0	0	0
		30세-50세 미만	명	1	0	0
		50세 이상	명	13	14	13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조합원수 ÷ 조합가입대상인원수

GRI Standards Index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GRI 102 : 일반보고(General Disclosure)						
구분	지표	내용	ISO 26000	SDGs 목표	보고페이지	비고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	6.3.10/6.4.1/6.4.2/6.4.3/6.4.4/6.4.5/6.8.5/7.8		8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	
	102-3	본사의 위치			8	
	102-4	사업 지역			12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102-6	시장 영역			12	
	102-7	조직의 규모			8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0,101	
	102-9	조직의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82, 83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7, 20, 21, 104~108	
	102-13	협회 멤버십				
전략	102-14	주요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7/6.2/7/4/2		6~7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14~15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4.4/6.6.3	16	12~13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6.2/7.4.3/7.7.5		84~86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89~91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의 책임			89~91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93~95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89~91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90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89~91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점검			89~91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GRI 102 : 일반보고(General Disclosure)						
구분	지표	내용	ISO 26000	SDGs 목표	보고페이지	비고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3	18	
	102-41	단체협약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8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8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2~23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5.2/7.3.2/7.3.3/7.3.4		-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 관행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2~23	
	102-47	중대 이슈 리스트			22~23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102-49	중요 토픽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22~23	
	102-50	보고 기간	7.5.3/7.6.2		2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	21년 12월
	102-52	보고 주기			-	22년부터 1년 주기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102-55	적용한 GRI 인덱스			104~107	
	102-56	보고서 외부 검증				
경영 접근법	103-1	중대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22~23, 25, 53, 77	
	103-2	경영 접근 방식의 목적, 토픽 관리 방법				

특정주제 (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 경제 (Economic Topics)						
구분	지표	내용	ISO 26000	SDGs 목표	보고페이지	비고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6.8.1/6.8.2/6.8.3 /6.8.7/6.8.9	8	97	
	201-2	기후변화가 조직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6.5.5	13	89~91	
간접 경제 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6.3.9/6.8.1/6.8.2/6.8.7	9	48~51	스마트 환경인프라 구축 및 환경서비스 고도화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6.3.9/6.6.6/6.6.7/6.7.8/6.8.1/6.8.2/6.8.5/6.8.7/6.8.9		58~61, 65~69	
조달 관행	204-1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구매비율	6.4.3/6.6.6/6.8.1/6.8.2/6.8.7	12	103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6.1/6.6.2/6.6.3	16	84~85	
GRI 300 : 환경 (Environment Topics)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5.4	7	98	
에너지	302-3	에너지 집약도	6.5.4	7	98	
배출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6.5.5	13	98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 법규 위반	6.5.6		-	위반 및 제재조치 없음
GRI 400 : 사회 (Social Topics)						
고용	401-1	신규채용, 퇴직자 수 및 비율	6.4.3	8	101	
	401-3	육아휴직	6.4.4	8	102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6.4.4/6.4.6	10	83	안전리스크
	403-3	산업보건지원 프로그램		9	62~63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6.4.6	9	62~63, 83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403-6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4.4/6.4.6	9	75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6.4.7/6.8.4/6.8.5	4	102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발전 프로그램 운영 현황	6.8.3/6.8.6/6.8.9	11	65~69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	6.7.1/6.7.2/6.7.7	9	103	위반 사례 없음
사회적경제적 법규 준수	419-1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	4.6/6.7.2/6.7.4/6.7.5/6.8.8		-	위반 및 제재조치 없음

TCFD 보고

TCFD	구분	2022년 보고사항	페이지
지배구조			
정보공개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이사회와 더불어 미래발전을 위한 ESG,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3대분야 위원회를 구성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관 미래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이행,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위원회의 매월 1회 정기적인 운영으로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범국가차원의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영,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정책, 지원 사업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방향성 자문을 수행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도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			
정보공개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사항 및 성과관리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과 정부 정책 대응 방안과 미래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국가의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은 온실가스 고배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NGFS(Network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 등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공단내 탄소중립위원회는 기관 넷제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CFD	구분	2022년 보고사항	페이지
위험관리			
정보공개 a)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공단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슈의 중대성 우선순위를 통해 공단의 본 업과 연계된 환경 이슈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부분이 High 레벨의 이슈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넷제로 로드맵 수립 등 기관 자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계획, 성과관리 등을 매월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에 관해 설명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계획, 성과관리 등을 매월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경영계획과 기관 넷제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전사적 차원에서의 리스크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와 감축목표			
권고 정보공개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고 정보공개 b)	Scope1, Scope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		
권고 정보공개 c)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설정한 목표	기관 넷제로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는 '24년 30% 감축, '30년 60% 감축, '40년 넷제로 달성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RE100 추진을 위한 성과목표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54.4% 이상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등 분야의 에너지 전환 주요과제를 도출하여 기관 넷제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표준

㈜나은미래플랫폼(이하 “평가자”)은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개발된 사회적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회적책임 경영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별 성과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범위

본 진단의 범위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행 성과이며, 이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전략 및 추진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책임 활동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단 방법

평가자는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관련 근거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단의 사회적책임 경영 활동·성과에 관한 내부자료 검토
- 공단의 임직원 인터뷰를 통한 현장 진단

I. ISO 26000 사회적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공단은 사회적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ESG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부분의 진단 결과, 전체 360점 만점에 344점을 획득하였으며, 핵심주제와 점점 분석, 실행, 의사소통 부분의 높은 이행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II. ISO 26000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7대 핵심주제를 다루는 사회적책임 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640점 만점에 61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환경, 조직 거버넌스 부분의 이행수준이 ‘매우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단영역	이행수준(2021)		
	점수/매점	총족률(%)	평가
사회책임경영 프로세스	344/360	95%	매우우수
조직 거버넌스	20/20	100%	매우우수
인권	112/116	96.50%	우수
노동관행	120/128	93.50%	우수
7대 핵심 주제	138/140	98.50%	매우우수
공정운영 관행	70/76	92.10%	양호
소비자 이슈	92/96	95.80%	매우우수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4/64	100%	매우우수
합계	612/640	95.60%	매우우수
총합	960/1,000	96%	A

III. 진단 결론

공단의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결과, 프로세스 부문은 360점 만점에 344점을, 성과 부문은 640점 만점에 612점으로 총점 960점을 획득하여 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수준 종합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수준이 높고 조직 활동의 전 단계에 사회적책임 활동이 통합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단은 정기적인 ISO 26000 진단을 통해 조직의 사회적책임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2월 1일
 (주)나은미래플랫폼 대표 박기호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환경공단 2022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한국환경공단 2022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한국환경공단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한국환경공단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 (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201: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 GRI203: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 GRI204: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 GRI205: 반부패(Anti-Corruption)
 - GRI302: 에너지(Energy)
 - GRI305: 배출(Emissions)
 - GRI307: 환경 규제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 GRI401: 고용(Employment)
 - GRI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418: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 GRI419: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Socioeconomic Compliance)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한국환경공단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환경공단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한국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한국환경공단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한국환경공단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한국환경공단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한국환경공단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 12.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황은희*

가입 단체

글쑤자동측정기협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북한물문제연구회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CRO협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스마트유티그리드학회
수질자동측정기협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국환경분석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환경컨설팅협회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기업학회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환경재단	한국환경한림원	한국조직학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건설환경협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물포럼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정책학회	국회물포럼

한국환경공단 2022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문의처

본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통해 전자보고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https://www.keco.or.kr>
주 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이메일 : sustainability@keco.or.kr
전 화 : 032-590-4000



본 보고서는 FSC® 인증 종이와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누리집 : www.keco.or.kr

주 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이메일 : sustainability@keco.or.kr

전화 : 032-590-4000